

# 지구촌비전

Vol. 308  
2025. 12월호  
민족치유 세상변화

02

이달의 메시지  
폭풍 속의 노래

22

예배부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26

특집  
BLESSING 블레싱  
2025 은혜 나눔

56

만나고 싶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의 발걸음

74

의학상식  
매일 얼마나 걸어야 알츠하이머병  
증상을 늦추는데 도움이 되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중에 평화로다

- 누가복음 2:14



## 12월에는

글 | 연규흠 권사

12월엔

마음의 밭을 다시 일구어야겠다.

메마른 밭을 갈아엎고

구멍 송송 뚫린 이랑마다 감사로 메우며

외롭다고 징징거리던 마음에는

사랑 한 줌 심어야겠다.

보화 같은 말쑥들로 세상사에 지쳐 덧난 상처를 감싸고

부질없는 욕심은 내려놓아

비움 속에 깃드는 채움의 부요함을 누리야겠다.

온종일 언 손 호호 불며

들녘에서 씨앗들을 품고 있는 흙들의 겨드랑과

마른 가랑잎들을 여기저기 덮어 주는 소슬바람과

논두렁의 말라 버린 풀잎까지도 어루만지는

겨울 햇살 아래서 다시 헤아려봐야겠다.

내가 걸어온 길 위에

스쳐 간 사람들 사이에

버려진 채 빛나던 소중한 것들을.

모르는 척 무심히 지나친 얼굴

섬처럼 외로웠던 이들에게 미처 건네지 못한 따뜻한 언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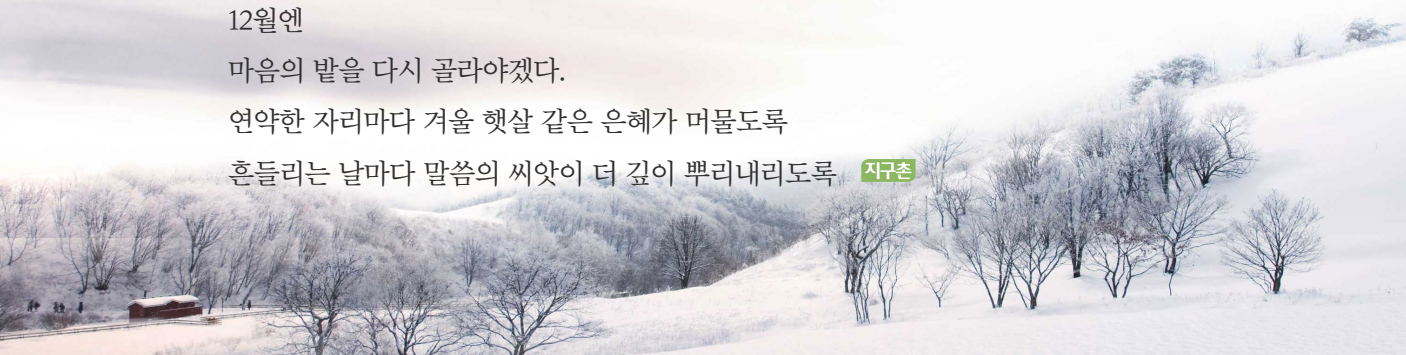
그 모든 순간에 스며 있던 그분의 손길을…….

12월엔

마음의 밭을 다시 골라야겠다.

연약한 자리마다 겨울 햇살 같은 은혜가 머물도록

흔들리는 날마다 말쑥의 씨앗이 더 깊이 뿌리내리도록 **지구촌**



## 표2 마음으로 읽는 시

12월에는

### 2 이달의 메시지

폭풍 속의 노래

### 8 이달의 칼럼

살아갈 날들을 위한 질문

### 10 내 평생의 말씀

내 평생의 말씀

### 12 목장이야기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전능하심

### 15 미취학지구

반짝반짝 성탄별

### 18 대학지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 20 청년지구

나로부터

### 22 예배부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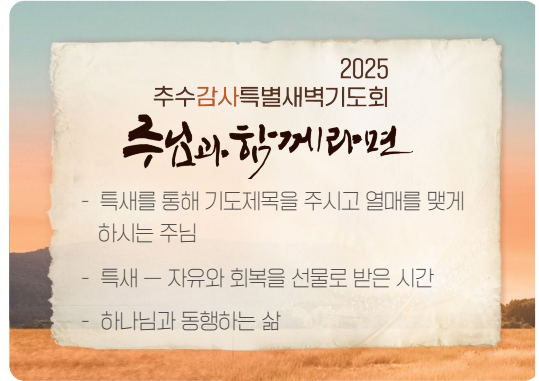
### 25 지구촌 카페

가을 십자가

## 45 마음 치유 클리닉

엄마와 아들 - 내 아이와 나의 관계는

아이의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준다



## 54 지구촌 갤러리

- 이해용 민유홍 작가 2인전 -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 정덕원 개인전 - 시선이 머무는 곳에

## 56 만나고 싶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의 발걸음

- 전도에 일상의 삶을 드리는 마권자 권사님을 만나다

## 60 피스메이커

엄마는 트러블메이커

## 62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섬사람을 세우고 사랑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한 2025 아름다운 나눔)

## 66 지구촌 토틱

인공지능 시대 신앙인의 지혜로운 삶: AI의 이해와 활용

(최중회) - AI 시대의 영성과 신앙

## 70 식탁에 내리는 단비

크리스마스를 닮은 '토마토 새우홍합 뼈에야'

## 72 지구촌 카페

정소영 변호사 초청 세미나

'선한 이름 뒤 숨은 반성경적 실체'

## 74 의학상식

매일 얼마나 걸어야 알츠하이머병 증상을 늦추는데

도움이 되나요?

## 특집 BLESSING

### 블레싱 2025 은혜 나눔

- 받은 사랑, 잊지 않습니다
- 노방전도를 통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 두근 두근 설레는 블레싱의 계절이 다가오다
- "울어도 돼" 주님은 말했지
- 2025 블레싱 아름
- 복음전도의 장이 열리다
- 한국어교실을 통한 외국인 블레싱 초청
- 당신을 위한 특별한 초대

## 42 글로벌목장

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 지상대명령



## 폭풍 속의 노래

시편 57:1-11

김우준 담임목사



한 무더운 여름,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는 쇼핑몰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문을 열어 주었을 때, 몇 명이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송국 저녁 뉴스 헤드라인에는 'Ungrateful Demanding Generation(감사할 줄은 모르고 요구만 하는 세대)'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감사할 줄 모른 채 계속해서 새로운 것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가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현주소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까? 혹시 감사는 메달라 있는 채 하나님을 향한 요구와 요청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 1. 감사는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사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겨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나쁜 일이 반복되면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위를 살펴보면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감사의 조건이 거의 없음에도 항상 웃으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다윗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습니까? 본문 시편 57편은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며 쓴 시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온 나라를 살살이 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겠습니까? 시시각각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으로 극심한 불안감, 두려움, 공포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을 쏟아놓기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의 저자인 허운석 선교사님은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님을 힘들게 했던 주위 사람들의 2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다 떠나가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죽어 봤자 천국에 간다는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나도 저렇게 쉽게 고통의 문제를 다룬 것들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의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2. 감사는 역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본문은 굉장히 암울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다윗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억울한지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다 토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9절-11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시편을 시작할 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며 은혜롭습니다. 어떻게 절망에서 시작하여 소망으로 끝나며, 암울한 시작이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이 대반전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나의 고통 중에서도

이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나의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나의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역전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감사를 선택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역전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역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큰 기적은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죄수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고통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간수가 별별 떨면서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은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울과 실라는 고위 관리로부터 권유를 받으면서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도 감사를 선택하는 모든 백성의 삶을 역전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도 선택이고 감사도 선택입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를 선택함으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 3. 감사는 기회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선사해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감격하시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이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나의 삶을 지탱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57편은 한 마디로 폭풍 속의 노래입니다. 나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격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고통은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동굴에서 숨어 하나님께 감사했던 찬양의 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은 그 순간에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전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했던 그 찬양에 대한 울림과 감동은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토록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격을 선사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감사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제 마음의 중심에서 타오르는 하나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감격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기를 지켰다는 뜻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언제까지나 기본기에만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감격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만 같아지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환난과 슬픔과 역경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할 때 하나님께서 감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는 그런 멋진 결작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는 선택이며, 역전이며 기회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감격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촌**



설교 바로가기 →



## 2025 은하수 기도회

지난 11/13(목)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교육목장에서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능기도회’ 은하수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은하수기도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표와 동일한 시간으로 1~4교시까지 분당채플 8층 본당 현장과 유튜브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매교시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강사분들의 말씀을 듣고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2교시에는 게스트 짐니(달빛마을)의 찬양을 통해 수험생 부모들이 위로받는 시간을 가졌으며, 담임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부모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구촌의 모든 수험생들과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 가운데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 살아갈 날들을 위한 질문



서범석 목사

어린이지구

톨스토이가 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에는 ‘인생 10훈’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1)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성공의 대가이다. 2)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능력의 근원이다. 3)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4)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지혜의 원천이다. 5)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6)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희망을 품는 일이다. 7)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8)주위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다. 9)웃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다. 10)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이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새로이 시작될 2026년을 바라보며,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내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인데 한가롭게 질문할 시간이 어디있느냐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왜 땅으로 떨어지는가?’라는 질문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과 혁신은 항상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살아갈 날들을 위하여, 잠시 멈춰 서서, 우리 스스로를 향해 질문을 던지는 일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겠지만, 구원받은 신자로서 살아갈 날들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누구를(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그 내용과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2:37을 보면, 예수님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의지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재물이나 명예나 사람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지나간 시간 속에 후회로 남는 일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사랑이 빛어 낸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보다 의미 있고 온전하고 복된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을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목장을 향하여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 **누가 채워 주실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채워 주실 수 있는가?’**입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모압의 왕 메사와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이라는 큰 위기 앞에서, 여호람은 그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자신을 도울 두 명의 왕과 함께 힘을 모았고, 완벽해 보이는 전술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 지 칠 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열왕기하 3:9)**. 물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싸워 보지도 못하고 전멸할 위기에 처한 것인데, 함께했던 여호사밧 왕의 제안으로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여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물이 떨어질 때가 찾아옵니다. 재물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최선의 준비로 시작한 사업이 생각지도 못한 변수를 만날 수 있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텅빈 내 삶을 과연 누가 채워 주실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분 곁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벌써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니 기쁘고 감사했던 시간들도 있지만, 후회로 남게 된 일들도 적지 않은 듯 합니다. 지나간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훈의 영역에 남겨둔 채, 다가오는 새해에는 조금 더 성숙한 신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세워 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신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며, 새로운 2026년을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구촌**

## 내 평생의 말씀



김관영B 목사

분당7지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0).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제가 누리는 것들을 이 글을 통하여 전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매년 통독하면서 읽어 왔지만 처음 몇 년간은 매일 정한 분량을 채우고자 마치 해야 할 일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갈수록 해야 할 일로 대하기 보다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체력 저하로 인한 응급실 방문, 허리 디스크 방사통, 골다공증, 갑상선 항진, 이석증 등 여러 질병이 시시로 아내에게 찾아왔고 이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저에게도 암이라는 생각지 못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회사 일로 자주 출장을 가곤 했는데 화장실을 계속 다녀와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고 검진을 통해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호르몬과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질병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전에 책별로 성경의 저자와 연대, 배경 및 기록 목적 등을 알아보고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종합하여 맥락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리 내어 읽습니다.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낱말과 구절이 들어오면 펜으로 표시합니다. 그날 제게 다가온 낱말과 구절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과 사랑을 묵상하며 다가온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지혜도 얻고 힘도 얻게 됩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마주 앉아 깨달은 것들과 주님이 부어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습니다.

지금도 질병이라는 고난을 견고 있지만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넉넉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고난 중에 붙들고 있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0)입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도 저와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리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가족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가족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변화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제가 그동안 감정적으로 화내며 상처를 주었던 것들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있었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저와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폭발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마을의 목사님을 통하여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영혼이 복음을 듣고 결신을 할 때의 기쁨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가며 오직 한 영혼을 위한 간절 한 기도로 준비하고 만나야함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훈련과 변화를 통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도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가까운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용기를 내어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저의 일생은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여전히 성숙해져 가는 과정으로 ‘공사 중’입니다.

나의 공사가 끝나는 그날 저는 주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시구촌**

##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전능하심



윤수연 목사

수지3지구 진송8마을 S진송86목장

결혼하며 초보 아내, 초보 엄마로 살면서 영과 육이 지쳐 있던 시절, 자매목장에 소속되어 함께 그 시기를 지나갈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2, 4학년이 된 두 아들을 데리고 한두 달에 한 번 이태원과 인사동으로 노방전도, 서울역으로 노숙자 급식 봉사를 다니는데 든든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이 큼니다. 남편은 물질로 지원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마음 가운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을 맡기리나...” 하신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저의 삶 가운데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내 양을 치라” 하신 요한복음 21:16 말씀을 받고 2020년 1월부터 목자로 섬김을 시작하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붙들고 즐겁게 사역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이름을 부르는 모두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박자영** 가장 힘든 시간에 희망이 되어 준 목장모임.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부담감은 어느새 제가 더 사랑하고 가고 싶은 목장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목장을 사랑합니다.

**조은숙** 목장모임으로 목자님과 목장원들을 만나게 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공유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는 순간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오유리**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나를 초대하셨던 자매목장에 내가 내 발로 찾아가다 보니 나는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곪아 있던 아픔이 치유되면서 회복하게 됐고, ‘신생아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게 되면서 인생의 관점이 바뀌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신 목자님의 섬김에 빚진 자로만 살다 어느 순간 부르심에 순종하여 교육목장 목자에서 경찬 목자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매목장을 통해 나눈 은혜가 흐르고 흘러 나뿐만 아니라 가정 또한 큰 긍정의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간증이 넘치는 우리 목장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김은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가다가, 믿지 않는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묵상과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시대와 남편과의 갈등, 육아의 버거움, 건강의 악화로 힘든 결혼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종시에서 용인시로 이사 오게 되면서 남편과의 잦은 다툼, 몸의 아픔으로 삶의 문제들은 더 심해졌고 나 자신이 무너져 버리고 가정이 깨져 버릴 것 같은 시기에 지구촌교회 목장 예배에 초대되었고, 그 안에서 1년 2년... 나의 아픔을 나누고 예배와 찬양,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가정과 건강과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 삶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처음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엄마 감사합니다. 목장 안에서 나의 아픈 이야기들을 묵묵히 들어 주고 중보해 준 목장 자매들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신 목자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회복되었던 목장예배 —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목장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목장으로 초대해 준 은숙언니 감사합니다.

서민영 제게도 가장 힘든 시간에 한줄기 소망과 빛이 되어 준 목장모임입니다.

목장이라는 셀 소그룹... 제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제는 바빠도 꼭 참석하기 위해 애쓰는 목장입니다. 결혼 초 오랫동안의 목장모임과 지구촌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 보았지만, 돌아온 탕자처럼 그 사랑 안에서만 제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됨을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목장원들 한분 한분과 교제하며 크지만 작은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지구촌**

## 2025 청바지 선데이 주일예배

JIGUCHON  
NEWS



청소년지구에서는 11월 9일(주일) "청소년이 바로 지구촌의 미래" 라는 주제로 10시와 12시 청바지 선데이 주일예배를 수지·경기대·분당 채플에서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특별순서(워십댄스)가 진행되었고, 담임목사님께서서는 다음 세대를 섬기고 계신 교육 목사님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담임목사님께서서는 "인생 망치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으며, 예배 후에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안수기도의 시간을 갖고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가 함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 반짝반짝 성탄별



최진영 목자

미취학지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누가복음 2:14).

유치촌 아이들 성탄 주일을 준비하는 손은 분주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 26명의 목자와 13개 목장 목장원 어린이들이 3개 팀으로 나뉘어 성탄 특송을 준비했다.

특송은 준비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다. 음치 박치 몸치는 찬양 앞에서 문제 되지 않는다. 오직 찬양과 기쁨은 주님께 영광이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 주었네'라는 찬양으로 몸짓과 목소리 그리고 기쁨으로 소식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웃으셨을 거야. 유치촌 목자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웃었다. 아기 예수님이 기쁨 중에, 우리 안에서 또다시 탄생한 것 같았다.

유치1마을은 30년 한결같이 섬겨온 할머니 목자님을 최고점으로 하여 80대부터 30대 목자님들 그리고 6세 아이들까지 3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이다. 할머니와 손주 같고 또 조카 같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예배드린다. 시공을 초월한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는 공간이다. 목자님들과 아이들의 눈에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은

다르다. 좁은 길을 걸어온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목사님들의 눈 속에는 여유와 포근함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애정의 별이 담겨 있다. 우리 아이들 눈엔 너무나도 순수한 하나님 별이 새겨져 있다. 다르지만 한결같이 빛나는 별 눈을 볼 때마다 신기하다. 이처럼 다양하게 빛어 주신 것 자체가 선물이다.



유치촌 목양목자로서의 내가 느끼는 기쁨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노처녀 시절, 섬기던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며 다짐 아닌 다짐을 한 적 있다.



‘하나님 저는 주일학교 교사는 절대 하지 않을 거고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수고하시잖아요. 헌금이 제 섬김의 최선입니다.’ 스쳐가듯 내뿜은 이 율조림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놓치지 않으셨다. 2022년 유치촌을 처음 찾아왔을 때, 당시 6세였던 딸은 분리불안장애가 심해 함께 예배를 드렸어야 했다. 쉬운 말과 기본에 충실한 아이들과 내 눈높이에 딱 들어맞는 설교 말씀과 목사님들의 아이들 돌봄에 감동을 많이 받았다. 아주 자연스럽게 유치촌으로 마음이 움직였다.

세상의 풍파에 맞서고 있는 내게 유치촌 목자 섬김은 매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기쁨이었다. (지금도 그렇다! ^^) 목장 아이들은 위로와 기쁨, 그 자체였다. 콧물이 흘러 입술에 닿아도 귀여웠다. 내 목소리에 무서워 울어도 이뻐다. 목자의 기쁨이다. 성탄주일 준비한 반짝반짝 성탄별 찬양은 완벽하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도 예뻐다. 아이들의 긴장도 예뻐고, 목사님



들의 상기된 얼굴도 예뻐고, 마음도 예뻐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얼마나 예뻐하실지 궁금했다.

목장에 허락된 '10분, 텐 미닛' 공과 시간은 아이들과 일대일로 호흡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이 텐 미닛을 일 년 동안 반복하면 한글을 몰랐던 아이들이 어느새 자기 이름을 쓰고 부모님 이름을 쓰고 목사님 이름을 쓰고 목장 이름을 쓰게 된다. '예수님'을 아주 또박또박 쓰고, 5가지 복음 색깔의 의미와 상징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놀랍고 신기하다며 기뻐할 새가 없이 아이들은 유년촌으로 흘러가야 한다. 새 출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유치촌과는 안녕이다. 작별의 시간이 성탄의 기쁨 뒤에 찾아온다. 잘 키운 새끼들을 보내려니 아쉽고,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난다. 예배를 통해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큐티아이를 통해 말씀과 가까운 아이들로 자라나고, 참 잘했어요 도장 팍팍 찍어 주고, 큐티상 받으려고 애를 쏟고, 매달 성구 암송과 함께 말씀 먹고 쑥쑥 자라난 코 짹짹이들, 너희가 자랄 때 더불어 나도 자랐음에 감사해. 유년촌에서도 목사님들 품 안에서 잘 자라기를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한다.

지구촌



##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길건 부목자

수지6캠퍼스

저는 오늘 XEE 훈련을 받으며 느낀 것들, 그리고 제 친구를 위해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28기 XEE는 제가 세 번째로 참여하는 훈련입니다. 이제는 전문 내용도 익숙해지고,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어색함도 많이 줄어서 일상 속에서도 친구, 가족, 지인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7주 차, 8주 차를 지나며 학교 친구, 훈련생의 지인,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싱 주에 제 오랜 동네 친구가 자꾸 떠올라 ‘한번 연락해 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던 제가 이상하게도 그 친구에게는 쉽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친구와는 진지한 대화를 거의 나눠 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라고 말하는 순간 상상되는 분위기만 해도 너무 오글거려서 그 친구와의 전도 자리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좋아하지 않던 친구였기에 더욱 조심스러웠고, 전도를 나중으로 미루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러다 시간이 지나 결국 전도를 못 했을 텐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꼭 해야 한다’는 마음이 매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교회 가자”, “교회 재밌어”라고 말하면 예전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경계심이 있는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을까? 를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결국 무작정 교회에 오라고 하기 보다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고 진심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친구가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월은 우리 교회에서 ‘친한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달’이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 시험 날짜랑 네가 소망하는 걸 알려 줘!” 친구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놀자’고 말하면서도, 정작 “너를 위해 기도할게”라는 한마디는 그렇게도 어렵고 낯설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스스로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친구에게서 시험 날짜와 함께 “고맙고 정말 감동이다”라는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친구였기에 저는 놀라움과 함께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제 친구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친구의 시험과 장래,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19-20).

작년 XEE 개강예배 때 목사님께서 전해 주신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아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XEE 개강예배를 앞두고 새로운 훈련생들을 만날 기대 속에서 다시 묵상했는데, 특별히 ‘합심하여’라는 단어가 있는 19절이 제 마음에 소망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 친구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음 학기, 그다음 학기에도 이 훈련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 친구를,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도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 사랑과 기다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XEE 훈련이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감사와 기쁨이 훨씬 더 컸던 10주였습니다. 또한 이번 훈련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제 삶에서 담대함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열정을 충만히 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 나로부터



이주현AW

청년 1지구

이번 블레싱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싶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동료들 간의 관계가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관계가 어려워진 동료들을 피하려고만 하다 보니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괴로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25년 2월, 이곳에 첫 입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만난 동료들은 짧은 시간 안에 개인의 상처에 대해서 제게 말해 주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더 지난 지금은 언젠가부터 그냥 출퇴근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더니 그 만족감에 회사를 다니다가, 그 사랑과 관심이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후임에게 돌아가니 질투와 시기로 마음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아 하는 나를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는 전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료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때까지는 나는 복음의 기쁨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니까 전도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오늘 예배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고, 그날 예배가 끝나고 청년부 사무실로 가 동료들을 위한 블레싱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어떻게 이 선물을 전달하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에 기도를 했습니다. 추석 전에 주어야 기분이 좋을까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기 전에 주어야 기분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추석 연휴가 다 지나가 버리고 출근하는 월요일 아침 6시에 회사에 나와 블레싱 선물과 함께 받은 스티커에 각 동료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 짧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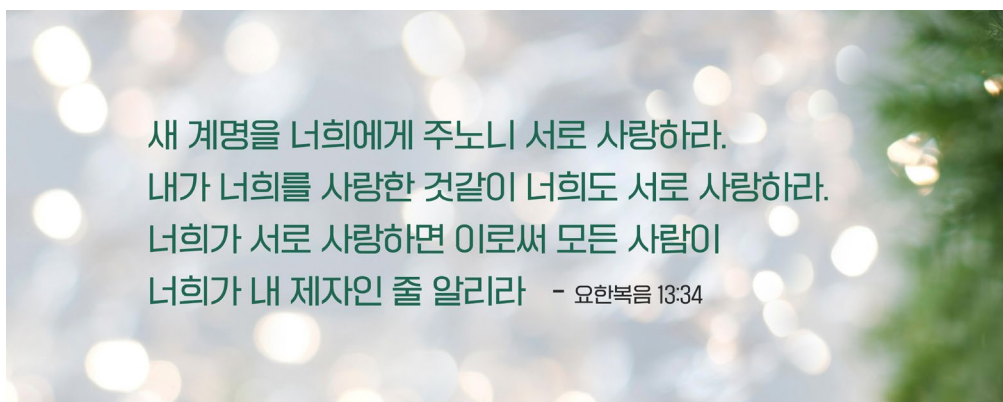
그동안 고마웠던 동료들에게는 감사, 마음으로 미워했던 동료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담아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구절은 적지 못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고 동료들이 하나 둘 출근을 하면서 선물을 확인하는데, 한 차장님이 선물과 같이 있던 QR코드에 들어가 보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료들이 블레싱 영상을 보는데 제 마음엔 새로운 확신이 점점 생겼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배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오늘도 그 선물들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료들에게 어떤 말을 언제 어떻게 해야 거절하지 않고 받아 줄까를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XEE 훈련을 들으면서 회사의 팀장님과 과장님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4).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오직 사랑으로 동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촌**





#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1년 사계절 중 가장 추운 계절인 겨울에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날 하나로  
웬지 모를 따스함과 포근함을 경험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물과 음식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추운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우리 인생에  
따뜻한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 소망과 평안이라는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크리스마스가 끝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시 1월, 2월... 더운 여름과 쓸쓸한 가을을 맞이하겠지만,  
우리의 매일은 설렘 가득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미소 지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외쳐 봅시다!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 「대강절」 우리를 찾아오신, 또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 기다립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5년은 11월 30일(주일)부터 12월 24일(수)까지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는 ‘기다릴 대(待)’를 써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12월 25일을 기다리는 들뜬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TIP. 대강절 대강대강 보내지 않는 꿀팁!

- 1 성경 말씀 묵상하기(대강절 묵상달력을 활용해 보세요!)
- 2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 나무에 달기
- 3 가정예배를 드리며 대강절의 의미를 나누고 함께 예수님 찬양하기
- 4 성탄 카드를 작성해서 소중한 이웃과 친구, VIP에게 성탄의 진짜 의미 전하기

## 「성탄절」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영어 ‘크라이스트(christ)’와 ‘매스(mass)’의 합성어로, ‘크라이스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를 영어식으로 읽은 것입니다. ‘매스’는 가장 전통적인 예배 의식을 의미하는 말로 크리스마스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성탄절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설들이 많지만, 최종적으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 「본질 회복하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 1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서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입니다.
- 2 빛 되신 구세주의 오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날입니다.
- 3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 4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를 건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감사로 가득 차 있나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을 기뻐하는 인사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경배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구촌](#)

## 「본질 회복하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b>11/30</b> 이사야 55:3-9	<b>12/1</b> 이사야 56:1-7	<b>2</b> 이사야 59:1-8	<b>3</b> 이사야 59:9-14	<b>4</b> 이사야 59:15-21	<b>5</b> 이사야 60:1-5	<b>6</b> 이사야 61:1-6
<b>7</b> 누가복음 1:1-4	<b>8</b> 요한복음 1:1-8	<b>9</b> 요한복음 1:9-18	<b>10</b> 마가복음 1:1-3	<b>11</b> 누가복음 1:5-16	<b>12</b> 누가복음 1:17-25	<b>13</b> 누가복음 1:26-38
<b>14</b> 누가복음 1:39-45	<b>15</b> 누가복음 1:46-56	<b>16</b> 누가복음 1:57-66	<b>17</b> 누가복음 1:67-80	<b>18</b> 마태복음 1:18-25	<b>19</b> 누가복음 2:1-12	<b>20</b> 누가복음 2:13-20
<b>21</b> 누가복음 2:21-33	<b>22</b> 누가복음 2:34-40	<b>23</b> 마태복음 2:1-8	<b>24</b> 마태복음 2:9-15			

## 가을 십자가

김봉덕 장로

지나온 계절의 시간속  
높은 곳 마다않고  
서서히 떨어짐을 준비하는 잎새 하나  
겸손을 드러내다.

다가온 계절의 시간 속  
하늘 마다않고  
묵묵히 떨구는 잎새 둘  
사랑을 나타내다.

다가올 계절의 시간속  
자신의 영광 마다않고  
서슴없이 부수는 잎새 셋  
희생을 내어준다.

떨어진 낙엽에  
주님의 핏방울 보네

밟히는 낙엽에  
주님의 찢긴 몸 만지네

부서지는 낙엽에  
주님의 호흡 느끼네

오 주님 용서하소서  
영혼을 구원한 사랑  
생명의 십자가  
가을에 다시 바라보네. 지구촌

HOLY  
BIBLE

## 받은 사랑, 잊지 않습니다



허성신A

분당 5지구 S파크타운13목장

2018년 예고 입시 때문에 힘들어하던 쌍둥이 딸이 온몸에 틱과 공황장애를 앓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딸을 살려 달라고 숨쉬게 해 달라고 소리 지르며 여기저기 울며 다닌 지 몇 달째...

함께 입시를 준비하던 딸 친구 엄마가 교회에 기도하러 가자는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따라나선 지구촌교회였습니다. 태어나 처음 방문한 교회는 참으로 낯설고 어색한 곳이었습니다. 크게 울려 퍼지는 찬송가에 혼이 빠져 나갔고 간증하시는 분의 신들린 듯한 모습은 솔직히 무섭기까지 한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괜히 왔다, 후회하며 나오는데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친구 엄마 지구의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 딸은 며칠 뒤 정말 기적처럼 최상의 컨디션으로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된 6시간 시험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3년만에 처음 바뀐 시험 전형이 딸에게는 오히려 유리해져서 포기하고 있던 학교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아 표현하기 힘이 듭니다.

그 후 감사함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찬송도 말씀도 나에겐 너무 힘들고 낯설고 어렵기 만해 줄면서 출석만 하며 두달 여를 지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서운하지 않으시 겠지?? 나도 이제 할만큼 하지 않았나 하는 엉뚱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만 나가자고 기한을 정하고 발을 빼려는 그날, 이동원 목사님 설교말씀을 듣는 내내 이유도 모르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느껴 보는 뜨거움이 뭔지 몰랐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이후에 신년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뿔아 든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편 73: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나를 찾아 주셨고, 내게 손을 내밀어 잡아 주시는 주님을 느꼈던 순간이었

습니다. 다음날부터 신년 새벽 기도회에 참가해 이유를 모르는 눈물을 쏟아 내고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은 제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이지만 예배자리에 가는 것이 제게 가장 소중한 일이 되었으며 수요 향수예배, 금요 목장예배, 금요 철야예배, 주일예배, 그리고 때마다 오는 특별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으려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많은 분들이 국내외 선교를 떠나는 모습에 도전을 받고 나도 남을 위해 살고 싶다는 거룩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소 건강에 자신이 없던 저는 우선 건강부터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몇년을 미루던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검진결과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해 준 진정한 터닝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궁 내막증, 높은 간 수치,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에이즈 양성 판정!! 에이즈라고? 내가?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오진'이라는 판정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은 제가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보낸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은혜이며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지나온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수술 후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욕심 많고 시기심 많고 부족함을 포장하려 아등바등 살던 내가, 그래서 늘 불안했던 내가,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어 힘겹게 살아가던 내가, 주님 주신 은혜로 한순간에 평안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기고 주님께 거저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든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을 찾으며 기도를 하게 되었으며 천국 구원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나누어 주는 전도의 마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에 말입니다. 요즘 저는 어디가나 누굴 만나든지 기승전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180도 변한 나의 모습에 가족 지인 모두 신기해 하지만 솔직히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제 자신입니다. 부끄럽고 숨고 싶은 나의 지난날이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며 자랑하는 나의 일상의 모습이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제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어떤 때는 저를 힘들게도 하고 어떤 때는 힘이 나게도 합니다. 아직은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받은 사랑 잊지 않으려 애쓰면서 살려구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극촌**

## 노방전도를 통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황화숙A 권사

분당4지구 5장안타운 1목장

‘10월 14일 화요일 오늘은 지역 전도를 하는 날이다. 블레싱 축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원의 축복을 받을까?’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설렘했지만 한편으로는 ‘전하면 뭐하나? 교회 등록도 못 시키고 헛걸음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은 예비 된 영혼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집을 나섰다.

교회에 도착해서 전도팀과 같이 전도지 작업 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전도지와 물품과 초청장을 챙겨 짝꿍 권사님과 함께 미금역 주변을 걸어가며 전도하는데 어느 카페 테라스에서 혼자 차를 마시는 자매가 보였다. 조심히 다가가 전도지를 전하고 VIP초청장을 전하며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잘 받아들였다. 영접기도까지 따라하며 아멘하고 화답해 주었다. 그 자매님은 다른 카페를 가려다가 이 카페로 오게 되었다며 올해 1월부터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어느 교회를 가야 하나 막연히 생각하고 마음으로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내일 “수요 예배가 있는데 오실 수 있느냐?”는 말을 하자 흔쾌히 올 수 있다고 대답했다. 교회에서 만나 수요 향수예배를 같이 드리고 밥을 먹으며 금요일 저녁 예배도 있는데 기도시간이 많아 좋다고 말하자 참석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더니 주일 예배도 참석해서 교회 등록까지 했다. 추수감사특별 새벽기도회에 30분을 걸어 첫날 참석했다는 말을 듣고 화요일부터는 차를 태워 토요일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 지금은 새신자 교육도 받고 있으며 매일 성경도 읽고 있다고 해서 너무나 기쁘다. 성경에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전도지를 돌릴 때마다 뿌리치는 사람들이 많아 실망할 때도 많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구원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앞으로 그 자매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일들이 기대가 된다.

10월 29일 블레싱 수요 향수예배 후 일어서서 결신하는 영혼들을 보며 도저히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한 영혼이라도 전하고 가야지’하는 마음으로 블레싱 초청장을 들고 혼자 미금역으로 나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전하며 초대하는데 다행히 두 분이 금요일에 꼭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 목요일 오시기로 한두 분 중 한 분이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와서 실망을 했지만 다른 한 분은 밤에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들려야 하니 조금 늦겠지만 다른 친구와 함께 오겠다고 하셨다. 금요 시니어 블레싱에 참석하셔서 한 분은 결신하셨고 친구분은 보류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분을 보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11월4일 화요일 지역 전도의 날이 되어 짝궁 권사님과 함께 미금역으로 전도를 나갔다. 날씨가 제법 쌀쌀했지만 수지 블레싱이 남아 있으니 블레싱 초청장과 전도지를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초청하고자 열심히 전도와 블레싱 초청장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김우준 담임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우리 일행을 보시더니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하셨다.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담임목사님께서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우리를 향해 오시는 게 아닌가! “추운데 이거 드시고 전도하세요.” 하며 직접 따끈한 유자쌈화차를 주셨다. 추운 날씨에 노방 전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고 직접 편의점에서 유자쌈화차 두병을 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사랑을 섬김으로 보여 주신 담임 목사님의 격려와 따끈한 쌈화탕을 받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 받은 것 같아 너무 감동이었다.

주님이 어느 날 우리 곁에 다시 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시다.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선물을 안겨주니 말이다. 함께 화요일마다 미금역 전도에 동역하는 짝궁 권사님과도 만남 또한 너무 감사하다. 이번 가을은 전도의 열매와 담임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는 선물을 가득가득 안겨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구촌

## 두근 두근 설레는 블레싱의 계절이 다가오다



김선영Y

분당 5지구 셋별1 마을장

###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

약 10년 전, 저는 전도폭발 XEE훈련을 통해 전도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전도는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전도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상의 만남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과 열정을 조금씩 키워 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네일샵에 갔다가 네일샵 원장님(30대,여)이 종교를 탐색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불교를 탐색 중으로 자기 전 스님의 명상 말씀을 듣다가 잠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불경 말씀을 들을수록 윤회사상으로 과거의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죽을 때까지 그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미 그분이 죄를 해결 받지 못하는 것, 죄 씻음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기에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세요. 기독교에서 죄는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공로나 자격,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날따라 제 뒤로 다른 예약 손님이 없어서 원장님과 식사와 차를 나누며 제 개인간증과 복음팔찌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네일샵 원장님은 카페에서 결신기도도 따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가을이 되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그때 교회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싱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 블레싱 목장 요리수업

일상전도를 하며 마음에 품은 VIP분들을 블레싱 초청 요리수업에 초대했습니다.

이 블레싱 초청 목장 요리수업은 2018년부터 코로나로 잠시 멈춘 2020년도와 2021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블레싱 초청 목장 요리수업은, 단순한 요리 수업 시간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따뜻한 식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통해 마음이 열리고, 모임 안에서 복음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이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전문 요리강사로 섬기고 있는 이나영 집사님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블레싱의 계절이 되면 집사님은 모든 자신의 강의 스케줄을 뒤로 하고,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요리 강사로 재능기부를 해 주셨고, 단지 요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속 간증과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에 블레싱목장 요리수업은 매번 하나님이 예비하신 VIP들과의 만남의 장이 되었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복음의 향기가 많은 VIP분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또한 블레싱 초청 요리수업은 두 목장(셋별11목장과 11목장에서 배가한 셋별15목장)이 함께 동역하며 섬기는 사역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블레싱을 함께 돕고 싶으시다면, 블레싱 초청 요리수업을 위한 공간의 환영 꽃데코와 꽃다발을 위해서 꽃집을 운영하시는 분당 5지구 임성이 권사님께 자비량으로 재능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 향기 날리러 갑시다!” 하시며 퇴근 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아름다운 꽃꽂이와 꽃데코, 꽃다발로 재능을 기부하여 주셨습니다.

해마다 요리수업에서 자연스럽게 듣는 일상 속 간증과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 꽃향기 가득한 꽃다발, 귀한 손대접을 통해 VIP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VIP분은 블레싱 초청목장 이벤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어찌나 잘해 주고 풍성하게 대접해 주는지. 이쯤이면 물건이라도 팔려고 들 줄 알았는데. 뭐 사라고 강요 안하네~” 하시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블레싱 초청 목장 요리수업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정성껏, 그리고 편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난 7번의 블레싱 요리 수업 중 두 번 참석했던 딸아이 친구 엄마와, 5번 참여했던 아들 친구 엄마가 올해 블레싱 초청 요리 수업에 이어, 올해에는 2025 블레싱 예배에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 공동체가 함께 전도하는 동역의 기쁨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동역의 기쁨을 풍성히 경험한 해였습니다. 셋별 11목장과 15목장

의 목장원뿐만 아니라 셋별 마을의 모든 목자님들과 5지구의 마을장님, 목사님도 블레싱 초청 요리수업에 참석할 VIP분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셨습니다.

수요일 저녁 블레싱 예배에 네일샵 원장님과 딸아이 친구 엄마가 오시기로 했습니다. 이미 네일샵 원장님과 저녁식사 후 함께 블레싱 예배에 참석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터라, 딸아이 친구 엄마를 동시에 모실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박모아 목자님(셋별 11목장 목자)과 조수미 목자님(셋별15목장 목자)을 통하여 동역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동안 요리 수업으로 안면을 익혀 왔었기에 제 지인이었지만, 두 분 목자님께서 딸아이 친구 엄마를 차로 모시고 와 주실 수 있었고, 저는 예정대로 네일샵 원장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네일샵 원장님이 청년부 예배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를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별 11목장의 집사님 따님이 청년부 목자(하예린 목자)로 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VIP분을 청년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드리기 위해 예린목자님은 그날의 모든 약속을 뒤로하고 네일샵 원장님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하기 위하여 출장 후, 청주에서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며, 저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공동체 전체를 사용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저는 전도가 결코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순종으로 동참하는 일이며, 하나님은 공동체의 연합과 사랑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VIP분들 중에 블레싱 예배에 오셔서 결신기도를 했던 VIP분도 계셨고, 보류하셨던 분도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한 자라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구촌**



## “울어도 돼” 주님은 말했지



이나열 목사

분당5\_5셋별15

올해 우리 목장은 블레싱 축제 콘셉트를 <미리 크리스마스>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평화를 위해 가장 귀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내 주신 그날이 있었기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축복”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이



땅에 외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블레싱 축제에 세상이 아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VIP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차노을의 <울면 안 돼> 노래 가사에 “울면 안 돼 산타는 말했지. 울어도 돼 주님은 말했지”라는 가사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세상의 크리스마스에선 울면 선물을 안 주지만, 주님 앞에서는 울어도 된다는 말이 진정한 아버지임을 나타내는 가사였습니다. 한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섭니다. 그만큼 내 양을 구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서입니다. 모두가 블레싱 축제를 위해 기도하며 많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전심으로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셋별 11 목장과 셋별 15 목장이 연합하여 수년째 블레싱 축제에 요리 수업을 함께합니다. 한 사람의 준비가 아니라 마을장님 목사님들 목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함께 준비했

습니다. 김현정 자매님의 톤아트 플레이스 스튜디오로 장소를 정한 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꽃꽂이로 섬겨 주시는 권사님께서 테이블마다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사고 각자 맡은 부분의 재료를 손질하고 커피와 차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VIP가 초대를 받은 날에 꼭 참석하시기를 마음 바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결단하여 주님의 품으로 안기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VIP들이 오시는 시간에 맞추어 준비를 마치고 피아니스트인 김현정 자매님의 오프닝 연주와 함께 블레싱 축제 오신 것을 환영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콘셉트에 맞는 요리를 직접 알려 드리며 마련된 테이블 위에 크리스마스 샐러드와 고사리베이컨 파스타, 바나나 라씨, 그릭 오이샌드위치와 다과 등을 곁들여 함께 먹고 마신 후 짧지만 먼저 믿은 자의 간증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울어도 된다는 말에 눈물을 흘리시는 VIP분도 계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다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며 서로를 축복하고 교제하고 선물도 드리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블레싱 향수 예배와 주일 예배에 오기로 약속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행하여 주신 VIP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추수할 곡식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블레싱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앞으로도 VIP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구촌**

## 2025 블레싱 아름



이수남C 목사

수지 연합마을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지구촌교회에 허락해 주신 '2025 블레싱'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5 블레싱 아름'을 준비하며 아름 목사님들과 교역자가 함께 '수지 장애인 복지관'과 '지구촌 보호작업장'에 전도함으로 출발 신호를 알리며 VIP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습하고 또한 함께 먹을 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도 아름 예배부를 섬기면서 특별히 아름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할 때마다 저희 목장의 김 집사님 자녀(최\*수 형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금번 블레싱 때 최\*수 형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장모임 때 김 집사님께 용기 내어 최\*수 형제가 아름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김 집사님도 흔쾌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최\*수 형제도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름 목장원의 VIP 초대는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김 집사님과 전도사님을 연결시켜 드렸고, 전반적인 아름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김 집사님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통화를 마친 후에 제게 통화 관련하여 피드백을 해주셨고, 최\*수 형제가 교회 올 수 있도록 잘 도우겠다는 전도사님의 말씀에 떨 듯이 기뻐했습니다.

블레싱을 몇주 남겨 놓고 저는 계속해서 최\*수 형제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고 최\*수 형제의 마음이 교회로 나아오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교회 오는 것은 비장애인과 달리, 많은 환경적, 심리적 제한이 많기에 모든 상황이 순적하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블레싱 당일! 아쉽게도 최\*수 형제는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최\*수 형제가 아무래도 삶의 루틴을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제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블레싱에는 오지 못했지만, 저의 기도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더욱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더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품는 법을 조금 더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실망이 아닌 소망으로 주님은 금번 블레싱 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변의 장애인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과 언젠가 곧 수지채플 202호에서 함께 그들과 인사하고 춤추며 하나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케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최\*수 형제가 교회 나오는 것을 잠시 망설이고 있지만, 주께서 힘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교회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선하신 예수님과 손을 꼭 잡고 걷어가는 최\*수 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블레싱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구촌**

## 복음전도의 장이 열리다



기징팡A

글로벌목장 중국어예배부

지난 11월 2일 중국어예배부 블레싱홈커밍주일에 저는 용인다문화센터에 다니는 중국 엄마 십수 명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한 인원 모두가 중국어예배부 블레싱홈커밍주일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중국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기란 더구나 복음을 듣게 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 2년의 관계 쌓기 기간이 있었습니다. 용인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여러가지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토요일이 되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중국어수업을 운영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많은 중국 엄마들이 자녀가 중국어를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 아이들을 다문화센터 중국어수업에 참여시킵니다. 아이들이 수업하는 시간에 중국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둘러 앉아 이런 저런 대화의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도 그들 중 일원으로 스며들게 됐습니다.

중국 엄마들이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있다고 중국어예배에서 나뉘더니 예배부에서 전도를 목적으로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 중국 엄마들이 함께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마침 그 시기 중국 엄마들의 관심 화두가 뜨개질이었고, 제가 뜨개질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아주 자연스럽게 작년 3월부터 아이들이 중국어 수업하는 동시간대에 중국 엄마들을 위한 뜨개질 수업을 다문화센터에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개강하는 날 예배부에서는 뜨개 바늘과 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방문하고 상견례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즐겁게 뜨개질 수업을 한 학기 진행 후 종강날에는 예배부에서 밀가루, 야채, 고기 등 만두 재료들을 준비해서 중국 엄마들과 함께 만두를 만들어 먹으면서 관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째 된 올해 말, 그동안 쌓았던 관계를 토대로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중국 엄마들에게 블레싱 초대선물을 드리면서 교회로 초청했더니, 거의 모두가 초청에 응해 왔습니다. 비록 한 번의 예배와 복음제시로 결신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 엄마들을 향한 전도의 장이 열렸고, 그들과의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것 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구촌**

## 한국어교실을 통한 외국인 블레싱 초청



이명현A 장로

한국어교실

저는 글로벌목장사역센터 내, 한국어교실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예수님의 복음 전파사역을 하고 있는 이명현 장로입니다. 이번 블레싱 기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국인 ‘선지빙’ 씨를 블레싱 중국어 예배 VIP로 초청하여 선지빙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심한 과정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한국어 교실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하는데 2025년 8월 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제게 배정된 몽골학생과 라오스 학생이 각각 개인 사정으로 학기 시작 초기에 수업을 그만두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께 복음사역을 위해 새로운 외국인 학생을 보내 주실 것을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중국인 선지빙 씨를 보내 주셔서 제 반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며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와의 첫 시간에 서로를 소개를 하면서 저는 그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영혼이며 한국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한국에서의 취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도대상자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지구촌 교회 블레싱의 일정이 홍보되었고 저는 선지빙 씨에게 블레싱 집회의 취지를 안내하고 11월 2일 중국어 블레싱 예배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선지빙 씨는 그날 다른 일이 있었음에도 일정을 조정하여 블레싱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교회 블레싱 집회에 초청했을 때 사단의 방해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선지빙 씨가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11월 2일, 저와

같이 참석한 블레싱 중국어예배에서 선지빙 씨는 복음제시를 듣고 결신카드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응답을 하였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위해 가능한 10시 중국어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선지빙 씨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와 거주지가 가까운 장점을 살려 정기적인 성경공부와 한국어 학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와 사는 곳이 가까운 선지빙 씨를 한국어 학습을 매개로 저와 만나게 하시고 지구촌교회의 블레싱 기간에 중국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육성을 위한 만남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선지빙 씨의 믿음이 자라나서 그의 집안과 지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 제95기 세상 증보의 길 세미나

JIGUCHON  
NEWS



제95기 교회 내 세상증보의 길 세미나가 11/14(금)~15(토) 분당체플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세상증보의 길 세미나를 통해 증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증보자로 세워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구촌**

## 당신을 위한 특별한 초대



조소현B

청년지구 다니엘촌

올여름 연구실의 몇몇과 함께 미국으로 학회를 다녀왔습니다. 성향이 모두 다른 여섯 명이 2주 동안 함께 지내야 했기에, 출발 전부터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준비 과정부터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마침 학회 기간이 청년부 국내 전도 기간과 겹쳐 있었기에 ‘선교하는 마음으로 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 중재하는 일,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일을 제 몫으로 삼았고,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이좋게 즐겁게 지내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개인적으로는 집을 떠나면 서러움이 밀려오는 편이라 올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고 목표도 온전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에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되어 퇴근길에 이유 모를 서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인데도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구조요청을 하자 마침 재생되던 찬양 가사가 들렸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밟으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순례의 여행 중이구나. 그렇다면 목표는 같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이좋게 즐겁게 지내다가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다음 날부터 연구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싱 기간이 다가오자 하나님보다 앞서서 열심을 경계하며 더욱 기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초대에 응한 친구는 이미 목장 모임과 예배에 몇 번 왔던 ‘얕은 양’이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제가 예수님 믿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한테만 전도 안 하면 돼”라고 했던 친구였지만, 함께 밥을 먹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초대했고 흔쾌히 받아 주었습니다. 그날 친구랑 헤어지고 돌아가는 길에 너무 기뻐서 뿔 수밖에 없었는데 이상할 만큼 다리가 가벼워서 날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블레싱을 일주일 남기고 초대장을 만들기로 다짐했지만, 월요일에는 아파서 출근하지 못했고 화요일엔 일이 많아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수요일엔 어떤 친구가 “내가 12월 19일 비워 놓으라고 했나?” 하기에 “아니?”라고 답하자 “그럼 이제 알았겠네. 비워 놔” 하며 크리스마스 파티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도 “내가 10월 26일 비워 놓으라고 했나?”라고 받아쳤고, 결국 세 번째 친구도 실험 일정을 조율해 블레싱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초대장은 목요일에야 완성했고 금요일에 모두 나눠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달이 너무 늦었기에 구두로도 미리 초대를 못했던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들은 못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마치고 기도회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두 명 모두 연달아 온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제 힘이 아님이 분명해,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드디어 블레싱 당일. 유치촌 예배를 마치고 연구실 사람들을 데리러 가는데, 마음이 들떠 계단을 두 칸씩 뛰어 내려갔습니다. ‘겨울왕국’에서 주인공이 파티가 열린다며 부르던 노래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가 떠올랐습니다. 제 인생에 블레싱이 이렇게나 잔치로 다가온 적이 있나 싶었습니다.

블레싱은 끝났지만 순례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매주 초청장을 보내고 있고, 연구실에는 복음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박사님과 함께 복음 공동체를 세웠고, 총 26명이 모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함께 QT를 하고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새삼 깨닫는 것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제 삶에서 간증 되게 하심에 한없이 감사합니다. 제 부족함과 무관하게 이미 영광이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시구촌**

## พระมหาบัญชา 지상대명령



Joseph Pornlertrit

조셉 폰러트리트

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สำหรับคริสตจักรของพระเจ้าที่สัตย์ชื่อ Global Mission Church  
ในการทำพันธกิจมิชชั่นเพื่อตอบสนองต่อพระมหาบัญชา ในพระธรรม มัทธิว 28:19-20  
“เหตุฉะนั้นเจ้าทั้งหลายจงออกไปสั่งสอนชนทุกชาติ ให้เป็นสาวกของเรา”

지구촌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촌교회는 마태복음 28:19-20, 곧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นี่ เป็นโอกาสพิเศษและการทรงเรียกของพระเจ้าในซี 5 ต ของผม. อย่างแรกคือโอกาสในการศึกษาต่อที่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พระเจ้าขยายพื้นที่ของผมออกไป และพาผมมาในที่ห่างไกลจากบ้านของผม. และพระเจ้ายังให้โอกาสในการรับใช้พระเจ้าที่คริสตจักรนี้ ซึ่งเป็นคริสตจักรที่มีพี่น้องหลากหลายเชื้อชาติ หลากหลายภาษา เป็นคริสตจักรที่มุ่งมั่นในการทำให้พระมหาบัญชาสำเร็จ

먼저 하나님은 제 삶에 특별한 기회를 주셨고 한국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한국에서 유학할 기회를 주시고 제 삶의 터전을 옮겨 주시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구촌교회에서 섬길 기회를 주셨는데, 이 이주자예배부는 다양한 민족과 언어로 이루어진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라는 뜻에 부합된 곳이었습니다



ทั้งหมดนี้ล้วนสะท้อนให้พินิจว่าในสองปีที่ผ่านมาฉันพระเจ้าทรงเรียกผมให้เป็นส่วนหนึ่งของพันธกิจมิชชั่น แม้ว่าก่อนหน้านี้ฉันเคยรับใช้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ซึ่งก็ไม่ได้คิดถึงพันธกิจโลกมากเท่าไรหรอก 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สำหรับGlobal ministry ที่ให้โอกาสผมในการฝึกฝนชีวิตของการรับใช้มากขึ้น พระเจ้าขยายเขตแดนในชีวิตของผม และการได้เป็นส่วนหนึ่งในM2M Ministry นั้นก็ได้เปิดโลกในการรับใช้ของผม ที่ผมไม่เคยทำมาก่อน คือการทำงานรับใช้กับพี่น้องคนไทยที่อาศัย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การร่วมมือกับพี่น้องคนเกาหลี และคนจากหลากหลายประเทศที่มาอยู่ร่วมกับGlobal Ministry,

사실 예전에는 태국에서 사역하며 ‘세계 선교’라는 단어를 크게 의식하지 못하였었는데 지난 2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M2M 이주자 예배부 사역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을 돌보는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고, 한국 형제 자매들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동역자들과 함께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สิ่งนี้เห็นได้ชัดขึ้นจากการไป MET ครั้งที่ผ่านมา สิ่งที่ผมประทับใจคือ ความตั้งใจในการเตรียมงานและการที่เรารวมพลังกันในการอธิษฐาน ผมได้เห็นชีวิตของพี่น้องสมาชิก ที่ตั้งใจรวมพลังรวมใจเป็นหนึ่งเดียวในการทำพันธกิจมิชชั่น เพื่อให้พระมหาบัญชาของพระองค์สำเร็จ ในคำคํานั้นผมรู้สึกประทับใจและตื่นเต้นกับความกระตือรือร้นของพี่น้องมากๆ

최근 MET 사역에 참여하면서 감동적이었던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며 준비하는 형제자매들의 정성, 기도, 마음의 연합이었습니다. MET 금요 기도회에서 큰 감명을 받았고 거기에는 성도들의 뜨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และการที่ผมได้ไปที่เชียงใหม่ 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ทำให้ผมสัมผัสได้ว่าพี่น้องคนเกาหลีรักและห่วงใยคนไทยมากๆ และเขาอยากจะทำสิ่งที่ดีที่สุดคือช่วยเหลือให้กับพี่น้องคนไทย ในขณะที่เราเป็นคนไทยแต่เรามีหัวใจที่รักพี่น้องคนเราแบบนั้นไหม? เราอยากเห็นพระมหาบัญชาของพระองค์สำเร็จในประเทศของผมและสุดปลายแผ่นดินโลกหรือไม่? สิ่งนี้กระตุ้นให้หัวใจของผมมันมุ่งมั่นที่จะเป็นส่วนหนึ่งที่ทำให้สิ่งนี้สำเร็จ ไม่ว่าจะด้วยของประทาน หรือสิ่งที่เราทำได้แค่ไหนก็ตาม

그리고 이번에 태국 치앙마이를 방문했을 때, 한국 형제·자매들이 태국인들을 향해 보여 준 사랑과 관심을 보며 “아, 한국인들이 이렇게까지 태국을 사랑하는구나...”를 느꼈고 우리 태국 사람들은 영혼의 사랑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태국사람들이 세상 끝까지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나도 내 민족을 위해 더 뜨겁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자리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능력의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그저 작은 부분이라도 맡겨진 자리를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ขอบคุณ, ณ พระเจ้าสำหรับที่ฉันได้มีโอกาส  
และได้รับใช้ทุกท่านที่คอยสนับสนุนการใช้ของผมนี่ ขอ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สำหรับพี่น้องเกาหลี  
และพี่น้องคนไทยที่ใจดี เป็นความอบอุ่นและเป็นพื้นที่ปลอดภัยให้กับผมเสมอมา แม้บางครั้งเรา  
อาจจะสื่อสารกันไม่เข้าใจด้วยข้อจำกัดด้านภาษา แต่ผมสัมผัสได้ถึงความรักและความหวังดี  
รวมถึงผมได้สัมผัสชีวิตแห่งการทุ่มเทและแบบอย่างชีวิตที่ดีตามพระเยซู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전도사님, 목사님들, 저를 조력해 주신 모든 분들, 한국, 태국 형제·자매  
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언어가 다르다 보니 가끔은 서로 “어...? 뭐라고요?” 하며 헤맬 때도 있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나 사랑과 따뜻함,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느낍니다. 저에게  
있어 이 교회는 늘 안전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และการเป็นเพื่อนร่วมงานในช่วงประเศรัฐเช่นเดียวกัน ขอพระเจ้าทรงเสริมกำลังพวกเราทุกคน  
ในการทำพันธกิจโลกและพระมหาบัญชาของ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ให้สำเร็จด้วยกันครับ

주님 안에서 함께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귀한 동역자  
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힘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구촌**



## 엄마와 아들

### - 내 아이와 나의 관계는 아이의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준다



이혜진

분당6지구 탄천 은혜6목장

여느 날, 여느 때처럼 상담에 온 진우(가명) 씨와 함께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며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잘 하지 않는 점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학창 시절 또래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자신을 괴롭히고 때리는 아이들 때문에 많은 시간을 힘들어하며 지냈던 얘기를 꺼냈다. 그 당시 울분이 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지 않았던 부모님에 관해 얘기하던 중, 진우 씨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다.

긴 세월 동안 친구들로부터의 괴롭힘은 진우 씨에게는 분노, 억울함, 슬픔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용기 내어 부모님에게 얘기한다고 해도 수박 겉핥기식의 대처이거나, 몇 번은 같이 대화를 나누어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 주지 않았던 것을 계기로 그때부터는 부모님에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을 잘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후에 친구 관계가 예전만큼 나쁘지 않았지만, 사람에 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며 지냈다.

상담하면서, 진우 씨는 그가 친구들과 무슨 일이 있거나 학교에서 무슨 일들이 있어 엄마에게 얘기하면 엄마는 잘잘못을 따지거나 냉소적인 태도, 다소 비판적인 태도로 어떠한 사항들에 관해서 얘기했다고 한다. 누구의 잘못이 더 중요했던 것일까. 엄마의 이런 반응에 내담자(진우 씨)는 엄마와는 점차 좋은 얘기가 어디에 합격하고 성취한 것들에 관해서만 얘기를 나눌 뿐 그 외에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속 얘기가 상처받은 얘기, 대인관계의 얘기들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누구에게든 얘기해도 내 편이 돼 주지 않고, 내 얘기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비판이나 냉소적인 요소가 되며 “네가 어떻게 했는데?”라는 식의 얘기를 듣게 되는 것에 대한 이차적 상처

의 화살이 날아와 더 마음이 아프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 배신감, 슬픔, 화, 이해 받지 못함, 소외당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너무 커서 언제부터인가 특히,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성취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다른 것들에는 관심이 없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 부분들과 부모님이 당시에 자신의 얘기를 자주 들어 주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힘들음을 해결해 주셨더라면 부모에 대한 이미지나 관계가 이처럼 다소 냉소적이고 거리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성취에만 관심을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담자는 자신이 손을 뺐었던 그 학창 시절에 대해 말할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

이때껏 그것에 대해 스스로 자기 이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거나 상처를 억압하고 억제하며 살았고, 그다지 편하지만은 않은 부모와 그럭저럭 살다가 마음에 상처가 깊어 터져 심리치료를 받게 된 것을 보며, 엄마의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사실, 몹시 어려운 일도 아니다.

진우 씨가 원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저 들어주고 토닥토닥해 주고 안아 주고 울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어 감정을 반영해 주고, 엄마가 실질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는 것이다. 담임선생님께 상의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도 깊은 슬픔과 괴로움, 힘들, 누군가가 내 편이 돼 주어서 나를 위해 싸워 주는 일, 따뜻함 등이 필요한 것이다. 감정은 인간 누구에게도 똑같이 다 느낀다. 단,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얼마 전, 우리 집 꼬마가 학교와 학원을 다녀오고 나서 보니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학교와 학원에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 말을 하면서, 아들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였다.

아들을 안아 주며 “그랬어? 그랬어~!”라고 했더니, 아이가 훌쩍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들이 무엇무엇 때문에 속상했다고 하는 얘기를 다 들어 주고 나서, 그런 일들이 또 생길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었더니, 아들은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한다.

“우리 엄마는 무서워. 우리 엄마는 너무 비판적이야, 우리 엄마는 냉소적이야. 우리 엄마는 차가워. 우리 엄마는 맨날 나 보고만 잘못된 거래.”

이런 말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재화되면, 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주장과 의견, 느낌,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아예 하고 싶지 않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와 관계는 피상적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학창 시절에 많은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 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려면, 엄마인 나부터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아이의 어려움과 아이가 먼저 꺼내는 자신의 마음을 귀 기울여 잘 들어 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고 부모가 할 수 있는 한, 내 아이를 괴롭힌 아이들이 우리 아이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께도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을 가지며 부모를 믿고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인생의 좋은 양분이 되어 어른이 되어도 세상에서 상황에 맞게 살아가고 대처하며 인간관계에서 덜 상처받고 무엇이 사람에게 필요한 중요한 가치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현재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 내가 당장 해야 할, 또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이의 성장을 위한 좋은 토양 양분을 심어 줘야지! **지구촌**

(다감심리상담센터, / 상담심리 전문가&임상심리사)

## 특새를 통해 기도제목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이현정 BA

수지3지구 진송64목장

저에게 첫 특별새벽기도회는 5년 전 고난주간으로 기억됩니다. 그 전년도 블레싱에 초대되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등록해서 새생명 새가족을 공부할 때쯤 신년특새가 있었지만 내가 아직 갈 곳은 아니라는 생각에 후보 광고로만 보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되어 아이 문제로 첫 고난이 왔습니다. 목사님과 자매님들의 기도와 위로로 애써 견디는 중에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것들로 주일 예배 때 잠깐 기도하는 저의 수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부러 기도한다고 앓아도 입술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께 원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난주간 특새가 시작되었고 목사님의 권유로 따라나서게 되었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 공기, 어둑한 밤길 줄지어 교회로 올라가는 차들, 예배시작 전 어두운 본당에서 사람들의 나지막한 기도소리... 모든게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기도시간에 그 부르짖음, 통성기도, 바로 옆자리에서 터지는 방언들에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막상 제가 기도할 것들을 하나도 소리내어 울리지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옆사람 목소리에 묻혀 주님이 제 목소리 못 들으실까 목청도 커지고 찬양도 마음에서 더 우러나는 것 같고 웬지 기도를 제대로 한 것 같은 뿌듯함도 들었습니다. 결국 원망의 기도는 원수를 축복해 달라는 기도로 바뀌었고 문제 해결 전에 저에겐 믿을 수 없는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후 아이 문제는 잘 마무리 되었고, 주변분들은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 특새가 열리면 항상 개근하고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초신자면서 열심히 나오는 것 그래서 남들이 대단하다 격려해 주는 것에 으쓱해하고, '아, 이렇게 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새가 거듭될수록 개근은 쌓이지만 저의 믿음에는 구멍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쏟으며 부르짖던 기도가, 나름 나에게 너무 절박했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원로목사님께서 기도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기울여 보라고 침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 한번도 그런 기도의 시간은 가져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배우긴 했는데 혼자 일방적으로 퍼붓고 일어나 버렸던 저는 조용히 집중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느껴지지 않아서 완전히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저에게 과제가 생겼습니다. 2년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주제의 설교를 열심히 찾아 듣고 주위 분들에게도 물어 보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뜻이 없는 제 열심과 독단으로 사역하고 일상을 사는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에 특새를 나갈 때에는 오직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고 싶다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설교 말씀에서 '나는 이미 네 안에 있고 네게 계속 말을 걸고 있다 그러니 믿고 너도 이제 자유하라고 난 널 계속 붙들고 있다'라는 마음이 훅 들었습니다. 그 이후 특새는 나가야 된다보다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궁금하여 나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기대하게 되고 설레고 비로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특새 때에는 그때마다 항상 다른 기도제목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저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원수가 생기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끔 세상 것을 구해야 되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중보기도는 어떤 심령으로 어떻게 구하는지, 자녀들을 놓고 내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5년 동안의 특새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 저를 훈련시키셨던 거구나' 하고 이번 간증문을 쓰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열심'에 기대는 것, 내 기도로 하나님의 열심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 이제 다음번 신년특새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실지 기대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받은 은혜를 되새기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구촌**

## 특새 —

### 자유와 회복을 선물로 받은 시간



박혜진 J

청년 2지구 반석마을

연속되는 고난과 인생의 또 다른 갈림길 앞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자주 흔들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 예배 때 익히 들어왔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구절이 유독 제 마음에 실천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 특별새벽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이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주님께 예배드려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무엇보다 나의 상황과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회 말씀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너무나 유명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주님과 함께라면’이라는 주제로 확신(1절), 신뢰(2절), 회복(3절), 동행(4절), 역전(5절), 축제(6절)를 말씀으로 풀어 주실 때, 단순히 암송하는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제 삶 속에 직접 적용되는 살아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첫째 날은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앎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붙들고 묵상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권능과 지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니 끝없는 불안 속에서 벗어나 담대한 평안이 제 안에 자리 잡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신뢰를 회복함으로 평안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자가 함께하실 때 느끼는 든든함, 목자만 바라볼 때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 그리고 목자의 결정이 최상임을 믿을 때

주어지는 안식을 묵상하며, 제 삶의 무겁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은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곤경에 빠지는 이유가 제 안의 나태함, 나쁜 습관, 교만 때문임을 돌아보며, 내 안에서 끊어 내야 할 것과 새롭게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날은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양들은 한자리에 머물게 되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싱싱한 꼴을 먹기 위해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은 달라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굳건한 위로와 확신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은 오히려 고난의 때일수록 사명에 집중해야 함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힘든 상황을 이유로 사명을 미루었던 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적 해결책임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축제의 삶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허락하신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목적에 따라 내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고백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제 개인적인 기도의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회복과 동행, 역전과 축제의 은혜를 마음 깊이 누리며 진정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고난과 여러 갈림길 앞에 세우신 그분의 뜻을 어렵듯이나마 알게 하셨고, 무엇보다 제 삶 속에서 완전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더욱 신뢰함으로 감사와 은혜를

깊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계속 상황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로 시선을 바꾸고 부정적인 생각을 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였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길 때 주어지는 자유와 회복을 선물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지구촌**

##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최승혁(C)

청년1지구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목자로서 나를 지켜 주고 계심을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주저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삶은 하나님 없이 나만의 생각과 힘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확신은 나의 삶에 큰 울림을 주었으며, 전능하신 능력, 무한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목자께서 언제나 나의 곁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두려움이나 분쟁, 염려 속에서 심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길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며, 힘든 순간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반대로 내려놓고 싶어 했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난 후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역전과 축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과와의 관계 회복으로 해결되는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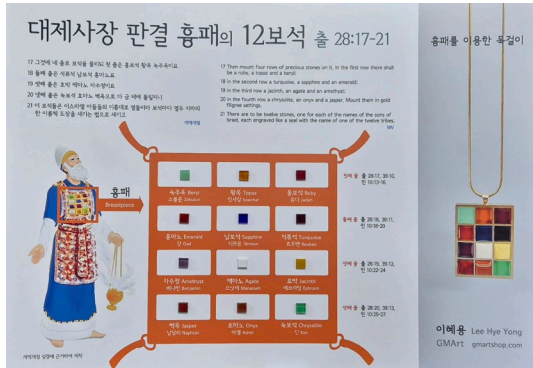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다’는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만의 생각과 힘으로 의지하는 삶을 내려놓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나를 지켜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심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원한 동행의 확신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로 소망합니다. **지구촌**

2025. 11. 29(토) - 2025. 12. 19(금) 분당채플 로비갤러리 & 프랑슈아 카페 내

이혜용 민유홍 작가 2인전

-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혜용 작가 작품) 흉패를 이용한 목걸이  
95.0×65.0 cm 12 보석, 은, 2025



민유홍 작가 작품) 무균병실-야곱의 사닥다리  
90.9×72.7cm (30호)

빛과 금속이 만나는 지점에서, 금속공예는 저에게 단순한 재료의 조형을 넘어 신앙과 삶의 고백을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흉패(胸牌)는, 구약의 제사장이 가슴에 품었던 12보석의 상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제작한 작품입니다. 그 흉패에는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리고 그 안에서 빛나는 진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금속이라는 차가운 재료 속에 따뜻한 빛과 생명을 불어넣으며, 작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지구촌**

전시 작품들의 주제는 우리 인생의 평안할 때나, 극한적인 고통과 절망 속에 몸부림칠 때에도 한결같이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조 섭리가 분명히 나타나는 아름다운 자연, 신·구약 말씀,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무균 병실 등을 소재와 제재로 하여 그 안에 내재,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위로하심을 표현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지구촌**



**이혜용**  
- 1985년 동덕여자대학교 졸업  
- 1987년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졸업  
- 1992 세인트루이스 주립대학 학계연수  
- 대한민국 국제 공예 부분 입선 및 특선(5회, 6회)  
- 개인전 18회 인사아트갤러리 등 단체전 170여 회

- 동덕여자대학교, 유한대학, 서일 대학, 백석대학 강사 역임  
연락처 010-6209-5788 e-mail: gmartshop1@naver.com



**민유홍**  
- MD, PhD(의학박사), 내과전문의, 혈액종양내과 분과전문의  
- 1991-202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혈액내과 교수  
- 2025 중앙회화대전,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특선)  
- 개인전: <예술, 경건에 이르는 연단> 원천아트갤러리, 서울, 2023 등  
- 단체전: KCAF 정기전,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2035 중앙회화대전 등

연락처 010-4758-1115 e-mail: minbrmmd@yuhs.ac

2025. 12. 20(토) ~ 2026. 01. 10(금) 분당채플 로비갤러리 & 뜨랑슈아 카페 내

## 정덕원 개인전 -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작품1) 시선이 머무는 곳에  
60.6×60.6 cm oil on canvas



작품2) 시선이 머무는 곳에  
116.7×80.3 cm oil on canvas

나의 그림은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잃어버린 것에 대한 향수를 자극한다. 실존적 풍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자연을 통해 마음의 고향을 그리듯 본질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가시적인 풍경이다. 늘 곁에 있는 흔한 풍경에 몸담고 살았던 모습을 이제 빛바랜 사진에서나 마주하다가 문득 그것이 멀리 있음을 깨닫는.

특별한 장소가 아닌 평범한 일상적 풍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름다움을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구촌**



정덕원 Jeong Duck-Won

- 세종대학교 회화과(서양화전공) 졸업
  - 개인전 및 부스개인전 37회
  - 구상회화 2인전 3회
  - 영호남 교류전, 현대미술의 다양성전,
  - 중견작가10인 초대전,
  - 대한민국 구상작가 초대전,
  - 한국구상회화의 새로운 비전,
  - 삶의 빛나는 순간들, 아시아예술 거장전,
  - 부산문화회관 개관 21주년 기념
  - 300호 초대전, 화인전,
  - 5인의 테마기행전 기획 초대전 400여 회
  - (현) 한국미협, 성남미협, 화인전, 한국 예문화, 중작파 회장, 서울 아카데미 부회장, 한국자연동인회 회장
- Tel : 010 2259 1231 / E-mail : jdwon1130@hanmail.net

## 영혼을 향한 사랑의 발걸음

— 전도에 일상의 삶을 드리는 마권자 권사님을 만나다 —

편집부 연구흥, 오도연, 이효자 기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수년째 미금역을 중심으로 거리 전도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 권사님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고, 작은 선물과 따뜻한 미소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미자립교회를 돕는 전도사역에까지 마음을 나누고 있는 권사님, 그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Q.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에 아주 힘없는 그런 사람들만 믿는 줄 알고, 대적하기 일쑤였습니다. 1986년도에 독일에 있는 오빠 초청으로 독일에 갔을 때도 몸속의 부적을 붙이고 갔었을 정도로 저는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마트를 운영했는데 어느 날부터 밤이면 괴물 같은 것들이 저를 죽일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에 시달리고, 일하면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면 아무 이상도 없는 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 날을 지속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에 실려 가서 입원했다가 퇴원했을 때, 남편이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그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 **Q. 먼저 전도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변 반응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제 마음 깊은 곳에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군가의 전도로 제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저 역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때부터 전도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요즘 누가 거리에서 전도하느냐?”, “가정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힘들지 않느냐?”는 말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너무 분명했고,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전도를 통해 전도하다가 점차 길거리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장애인, 노숙자는 물론 제가 만나는 가게 주인들과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 **Q. 전도하실 때 선물을 준비해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작은 선물이지만 마음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돼요. 선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 담긴 “전도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귀하께 여기는 선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라며 준비하고 있어요. 또 한 분의 권사님은 본인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알게 하셨다면서 전도하실 때 전도해서 등록한 분들에게 서점에서 자기의 이름 말하고 마음껏 성경책 가져다가 드리라고 해서 현재 100원 넘게 그분 이름 말하고 가져다 드리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 **Q. 미금역 지역 전도팀은 어떻게 구성되었고, 사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이단을 믿고 있는 여자 자매들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자기네 종교를 믿으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이단들은 저렇게 전도하려고 힘쓰는데 우리 교인들은 도대체 뭐하나 하는 생각에 거룩한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마침 어떤 전도사님이 제 카톡으로 노방전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길거리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마다 15명으로 구성된 전도팀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한 후, 2명~3명씩 짝을 지어 미금역 근처에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팀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움직이다 보니,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열매를 보게 됩니다.

### Q. 전도하며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들었나요?

믿지 않는 가정의 남편과 결혼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하방에서 생활하던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전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 27명을 전도했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갈 수 없는 안타까움에 목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격주로 거동이 어려워 이동하지 못하는 장애인 가정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12평 임대아파트가 딱 찼을 정도로 뜨거웠던 예배의 열기는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저를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과 노숙자는 물론 임종시설 사역으로 많은 분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전도를 위한 물질은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 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 Q. 전도와 관련된 특별한 간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정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저희 아이들을 모두 잘 키워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주 오래전 전도폭발훈련을 받으시던 집사님들(지금은 권사님) 두 분이 제게 전도대상자를 부탁하여 들어주었을 때 그분들이 제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한 분은 저의 큰아들을 미국에 보내 주어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다른 한 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제게 필요한 여러가지 것들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과 함께 이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기도하며 전도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통해 공부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캐나다에서 공부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의 취업을 통해 가정의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제 가정에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전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 Q. 미자립교회를 위한 전도사역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경제적인 면은 물론 여러 가지로 힘든 미자립교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더구나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 보았기에 미자립교회를 보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는 미자립교회를 방문하여 사모님들께 식사하시라고 식사비를 챙겨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화분을 두 개씩 구매해서 교회 강대상 앞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자립교회에서 진행되는 블레싱 이웃 초청잔치에 그 지역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에게 전도하여 교회로 연결해 드리는 등 미자립교회를 위한 전도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 Q. 전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전도에는 완벽한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고, 사랑을 전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을 준비하세요. 아파트경비원, 미용사, 은행원, 길거리 상점주인 등 우리가 만나는 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작은 선물, 따뜻한 미소, 관심을 보이고 교회로 초청하면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주님이 함께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 Q. 앞으로의 소망과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나눠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새벽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권사님의 순종과 헌신의 걸음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

가장 귀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한다.

**지구촌**

## 피스메이커

## 엄마는 트러블메이커

송대희 | 피스메이커 36기 훈련생

십수 년 전, 피스메이커 훈련을 받으시던 권사님께서 참 좋은 훈련이라며 권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나름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하며 훈련을 미뤄 왔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 아들에게서 '엄마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고, 지난해에는 딸에게서 '엄마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비로소 훈련을 결심했습니다. 강의를 듣기 시작하자, 스스로 피스메이커라 착각했던 교만한 마음은 사라지고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딸과의 갈등 사례를 작성하면서, 저는 갈등 상황에서 기도와 말씀 대신 오직 주관적인 생각, 판단, 경험에 의한 '사실'만을 이야기하며 제가 맞고 옳다고 주장했던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의 말에 마음이 상해 언성을 높였던 딸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녹아내리자, 비로소 딸의 상한 마음과 감정이 헤아려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딸에게 "네 감정은 무시하고 사실만 말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그래 엄마, 내 감정만 이해해 주면 돼"라고 답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 하던 중, 딸아이 마음속 깊은 곳에 14년 동안 박혀 있던 가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딸은 저의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아파하며 언성을 높이곤 했던 것입니다. 그 가시는 바로 '대학입시' 문제였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마음에 딸 스스로 박아 놓은 가시였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느끼고 있었지만, 건드릴까 두려워 회피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갈등을 통해 오랜 시간 깊이 박혀 있던 가시를 빼내어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딸은 서로 갈등이 생기면 '피스메이커 훈련 가서 잘 배우고 오라'며, 훈련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갈등 사례를 적는 과정을 통해 화해하고 회복하게 되니, 두렵고 낙심되던 갈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저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피스메이커 훈련 학교로 인도하신 하나님, 세밀하게 실제로 적용하도록 강의해 주시는 목사님, 갈등을 잘 풀어 가도록 도와주시는 조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피스메이커  
KOREAN PEACEMAKER MINISTRIES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의 통로 한국피스메이커  
<http://koreapeacemaker.net>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갈등에 놓인 성도들을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 How to Help?

갈등이 가져오는 최악의 결과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거능력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훈련된다면,  
**"갈등은 기회입니다!"**  
우리 삶이 복음에 대한 간증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될 사람은,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마 5:9).**

## 성경적인 갈등관리와 해결을 위한 제55회 피스메이커 지도자훈련



<b>일시</b>	2025년 12월 8일(월) ~ 10일(수) 2박 3일간	<b>강사</b>	여삼열 목사(한국피스메이커 대표) 홍 혁 목사(한국피스메이커 사무국장) 이정하 목사(지구촌교회 피스메이커 담당)
<b>장소</b>	필그림하우스(*경기도 가평소재)	<b>내용</b>	1) 피스메이커학교(12주) 전과정을 압축소개, 인도자지침서 제공 2) 기본 강의를 통해 갈등관리와 해결을 위한 성경적인 원리 소개 3) 사례기록 및 나눔, 대화의 기술 및 역할훈련 등을 통해 실제 갈등상황에 적용
<b>대상</b>	교회, 선교단체 지도자 및 평신도리더 30명(선착순)		
<b>참가비</b>	25만원(*숙식, 교재비 포함, 다인실기준 / 기수료자 재수강시 13만원)		
<b>후원</b>	지구촌교회 교육훈련부		
<b>신청 등록 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접속 ▶ 팝업창 바로가기 ▶ 등록하기 ▶ 구글폼작성 ▶ 참가비입금</li> <li>• 등록마감 : 12월 1일(월)</li> <li>• 취소 시 환불규정 : 본 훈련은 숙박훈련으로 숙소와 식수를 사전 확정합니다. 등록 전 아래의 내용을 숙지해 주십시오. -11/28(10일 전) 100% 환불, -12/1(7일 전) 70%환불, -12/3(5일 전) 50%환불, -12/5(3일 전) 30%환불, 이후 환불불가</li> </ul>		



(사)한국피스메이커(이사장 이철 목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모든 인간관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며, 더 나아가 조정 및 중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청·문의 Tel: 02-532-1232 E-mail: [info@koreapeacemaker.net](mailto:info@koreapeacemaker.net) 신청시 입금계좌 하나 366-910004-19204(예금주: 한국피스메이커)

# 사람을 세우고 사랑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한 2025 아름다운 나눔)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힘을 더해 주신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우리 이웃의 삶에 온기와 희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귀한 섬김이 모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와 회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사역이 이웃에게 선한 영향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 1. 사랑을 나누는 지구촌 공동체의 선한 발걸음



이웃을 향한 마음이 모여 사랑의 손길로 이어졌습니다. 부활절의 기쁨을 나누며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해피란'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는 편지와 그림으로 한부모가족을 응원하는 엽서 이벤트를 더해 마음을 나누는 참여의 폭을 넓혔으며, 저금통 뒷면에 QR코드를 부착하여 나눔이 일상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사랑의 쌀'을 진행하여 진심 어린 손길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를 나누는 선한 발걸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 2. 배움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지구촌사회복지재단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한 배움과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단의 종사자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연합하는 전체 직원연수에서는 김우준 담임목사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빌 4:6-7)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 교회사회복지재단으로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깊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단과 산하기관이 한마음으로 사역을 이해하고 소속감을 나누는 ‘신입직원교육’과 각 기관의 중간관리자들이 인사·노무, 조직관리, 구글 스마트워크 등 총 4회기를 교육하며 조별 모임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다잡았습니다.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배우고 성장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길을 꾸준히 걸어 가겠습니다.

## 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의 손길



가족과 어르신, 장애인 등 지역주민이 필요한 돌봄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기관 운영의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올해 ‘용인시사랑의집’과 ‘용인시가족센터’를 재수탁하여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이어 가고 있으며, 새롭게 ‘용인시동백장애인주간이용센터(26년 4월 개관 예정)’와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26년 10월 개관 예정)’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가까이에서 이웃의 일상을 지키는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 가겠습니다.

### 4.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준비물과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맘 좋은 프로젝트’, GMN과 함께 어린이날을 맞아 희망하는 물품을 선물하는 ‘5월의 크리스마스’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녀들의 학업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맘좋은 스튜디오’, 가족여행을 통해 가족 간 관계를 회복하며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맘좋은 힐링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은 한부모가정이 삶의 균형을 되찾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5.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지역축제



장애인의 날(4월 20일),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지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함께 참여한 ‘췌췌췌’와 나눔문화 실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수지나눔문화축제’, 장애인의 날을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행복여울축제’,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공경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되새긴 ‘해피 페스티벌’ 그리고 가족이 함께 웃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모든 가족, 가을 축제’까지 풍성한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의 장을 넓혀 갔습니다.

## 6. 투명한 재정을 위한 회계감사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은 재정의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용인시 지도점검과 내·외부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재단과 소속기관의 회계 운영 전반, 후원금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지구촌 성도님의 선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흘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7. 화성시동탄아르딴복지관 제1회 '아르딴 로보틱레이스' 개최



화성시동탄아르딴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자신감 회복과 긍정적인 경험 제공을 위한 로봇 재활 스포츠 행사 '아르딴 로보틱레이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웨어러블 로봇(외골격) 경주'와 '전동휠체어 경주'로 구성되었으며 화성시 내 장애인복지관 2곳과 타 지역 장애인복지관 5곳 등 총 7개 기관에서 20명의 장애인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단순한 경쟁이 아닌 장애인의 주체성과 성취를 응원하는 자리로 선수와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 어울리며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사역을 통해 신체 기능 향상과 여가 지원, 스포츠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시대 신앙인의 지혜로운 삶: AI의 이해와 활용(최종회)

## — AI 시대의 영성과 신앙

차동혁A 장로

분당 9지구

AI시대의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과, 영성과 신앙생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수 있을까?

AI가 특정한 분야가 아닌 전반적인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향후 인류의 존재양식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초지능(ASI :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등장할 수 있다**는 주장(샘 올트먼, 제프리 힌턴 등)과,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등장이 어렵다**고 보는 주장(얀 르쿤, 케리 마커스 등)이 있습니다. ‘AI가 인간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최근 AI의 발전 속도로 볼 때 그 **가능성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AI에 대한 인간의 통제가 가능할까?

그러면 AI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통제는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서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과, **통제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AI에서 인간의 승인·감시·중단 기능의 강화와 개발 시의 목적함수, 정렬 등을 보다 발전된 형태로 구현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반대의 입장은 AI가 고성능화 될수록 인간이 그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며,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행동이나 통제 거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AI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대한 대답은, **현재의 ANI(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 인공 협의 지능)** 수준에서는 적절한 규제와 인간 개입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향후 모든 범위에서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지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 인공 일반지능)**나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 초지능(AGI)**로 발전하면 **통제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교수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I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들을 **'굉장히 귀여운 호랑이 새끼를 가진 사람'**에 비유하면서, “이 새끼 호랑이가 나중에 자라서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 당신은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I에 대한 **안전장치와 감독 체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AI는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2013년 미국에서 제작한 ‘그녀(Her)’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AI가 발전한 미래의 미국 사회에서 시어도어라는 외로운 남자가 최신 AI 운영체제인 사만다와 대화를 하고, 나중에는 서로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굳이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영화나 작품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AI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AI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AI 자체가 감정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구현되어 있는 AI는 대부분 **거대언어모델(LLM : Large Language Model)**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확률기반으로 응답을 만들어 내는 구조**이므로, AI가 사용자(인간)의 감정을 해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반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AI 자체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AI와 대화하는 사람이 **AI와 감정을 공유한다고 느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대화하는 사람이 AI의 대답으로부터도 공감이나 배려감을 느낀다는 최근의 흥미로운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 4. AI와 인간, 그리고 영성

**인간의 영성** : 성경은 인간이 몸과 영혼(또는 영과 혼)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세기 2:7).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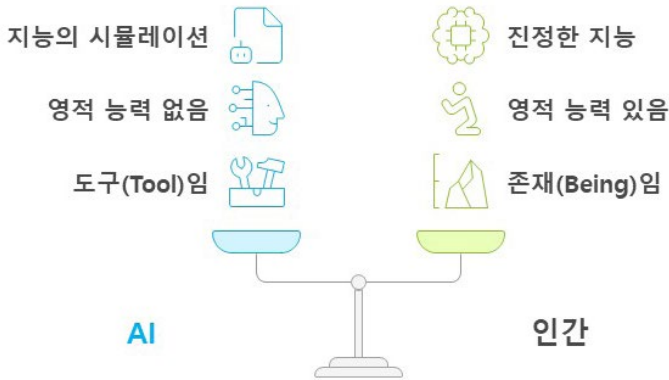
그러면 인간의 영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적 영성**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과정(이동원 목사)’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를 ‘도구’로 보는 관점 v.s. ‘존재’로 보는 관점**

그런데 AI는 인간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 지능의 시뮬레이션’이므로 인간의 마음이나 영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AI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도 없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가질 수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의 신앙 여정의 깊은 의미를 AI는 이해할 수도 없고, 진정한 기도와 예배를 AI가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 라는 말씀을 AI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이 말씀의 실천은 더더구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I를 ‘존재(Being)’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AI는 일관되게 ‘도구(Tool)’이자 인간의 개발품입니다. AI가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예수님과 소통하거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5. 영적 성장 및 기독교 사역을 위한 AI의 활용**

AI가 ‘인간이 만들어낸 솜씨 좋은 도구’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영적 성장 및 기독교 사역을 위한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그 중의 몇 가지 예입니다.

**성경 연구 및 기도 생활 지원** : AI는 개인 성경 연구에서 좋은 학습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의 묵상, 성경 공부 자료 준비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교회 행정 및 선교, 전도 활동 효율화** : AI를 잘 활용하면 교회 내의 다양한 행정 업무를 효율적

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교역자나 신도들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나 각종 기관 등에서 업무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맞춤형 신앙 교육 및 제자 훈련** : AI는 개인이 신앙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설계하고, 교육 효과와 내적 신앙 성장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6. 영적 성장을 위한 AI 활용시의 유의할 점

AI를 영적 성장 및 기독교 사역을 위해서 활용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이것은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 신앙의 길은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며 내가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학적 오류 및 이단적 해석의 위험성** : AI의 큰 우려 사항은 특히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명확한 진리나 진정한 답변보다는 ‘그럴듯한 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AI는 확률적으로 그럴듯한 응답을 만들어 내는 구조이므로, 그 답이 늘 옳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분별력 없이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신학적 오류를 전파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단적 해석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AI의 답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AI 활용의 가이드라인** : AI 시대를 맞이하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몇몇 가이드라인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예로 들면, 한국기독교교회에서는 2025년에 ‘AI 개발 및 활용 12 준칙’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AI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하며, AI의 공정성, 통제성, 그리고 AI에 대한 교회의 역할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도 AI는 인간 창조성의 산물이며, AI를 비롯한 과학기술은 반드시 인간 존엄과 공동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2025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수 있는지, AI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AI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걸어가야 할 성경적 영성의 길은 결코 AI로 대체될 수 없음도 알아보았습니다. AI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 및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AI의 올바른 활용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규춘**



## 크리스마스를 닮은 '토마토 새우홍합 뽀에야'

재료(약 3인분)

흰쌀 400g, 육수550g (토마토포레 250g+물 or 해물 육수 300g), 코인육수 1알, 소금, 완두콩, 새우살 200g,

홍합 500g, 올리브오일, 뽀에야 조리용 낮은 냄비 or 프라이팬, 홍합 데칠 깊은 냄비

레시피

1. 홍합 데칠 냄비에 물을 올려 끓여 주세요. 물이 끓으면 깨끗이 손질한 홍합을 넣고 팔팔 끓으면 1분 더 끓이고 불을 끄고 뚜껑 닫아 3분만 뜸들여 주신 후 홍합만 체에 건져내 주세요.
2. 위의 냄비 그대로 다시 홍합육수를 끓여 주세요. 끓으면 불을 끄고서 새우 살을 넣고 뚜껑 닫아 뜸들여 익혀 주세요. 새우가 익혀진 색이 나면 체로 건져내 주세요
3. 뽀에야 팬에 씻은 쌀을 물기 빼고 담고 토마토포레 + 물 or 위의 해물육수를 부어 준 후 코인육수 1알을 넣고 센 불로 쌀을 계속 저어 가며 물을 졸여 주세요. 육수가 녹으면 추가 소금을 넣어 원하는 간으로 맞춰 주세요. 물이 졸아 들었을 때 최대한 작은 약불로 불을 줄이고 뚜껑 닫아 10분 조리 후 불을 끄고 홍합, 완두콩, 새우를 넣고 다시 뚜껑 닫아 10-15분 더 뜸들여 주세요.
4. 드실 때 올리브오일을 충분히 뿌려서 섞어 드세요.
5. 후추나 딜(허브)를 곁들여 드셔도 좋아요.

이 레시피와 글이 우리의 가정, 목장모임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의 사랑을 붙여넣는 매개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하나님!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다가왔어요.

결심도 하고 다짐도 했지만 올해도 죄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일은 참 어려웠어요.

어떤 날은 넘어졌고 어떤 날은 눈물로 지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다시 웃을 수 있었고 또 다시 기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이렇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릴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영원한 죽음에 놓인 우릴 자신을 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걸까요?

허락하시는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들,

어려울 때에도, 쉬을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우리 안에 영원한 빛,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벽찬 감사가 흘러 넘쳐서 견딜 수 있는 소망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하게 부어 주셔서 감사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크리스마스처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3-4).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시편 107:1). **지구촌**



**이단비 목사** 청년1지구 여호수아촌 빛진자목장

도서 '최강의 레시피'(저자 데이브아스프리) 전채 감수&비주얼디렉팅 / AK플라자 제철식재료

레시피 연재(레시피&사진&영상) / '곤트란쉐리에' 브런치 메뉴개발

인스타그램 foodstylistdanb 이메일 danbione1@naver.com



## 정소영 변호사 초청 세미나 '선한 이름 뒤 숨은 반성경적 실체'



김영희 권사

분당15지구 동백루디아목장



지난 11월 16일, 130여 명의 성도가 참여한 가운데 '제5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정소영 미국 변호사(세인트폴세계관아카데미 대표)는 차별 금지법이라는 '선한 이름' 뒤에 감춰진 법안의 반성경적 위험성과 유사법안이 통과된 서구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 법안이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천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현시대의 기독교 사회와 문명을 가장 위협하는 세 가지 흐름이 무지개 깃발(성소수자 인권 운동), 붉은 깃발(법 제도를 통한 자유 억압), 검은 깃발(이슬람 신정주의)이라는 기독교변증학자 오스 기니스(Os Guinness)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생식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된 사례가 있고, 동성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배우자)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동성가족을 인정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사회 모습들을 전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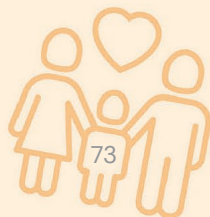


세미나에 참석한 한 성도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시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죄도 사랑하고 보듬어야 한다고 하는 세상의 강력한 목소리와는 분명하게 다른—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각자가 삶에서 살아 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구촌**



### 강사 정소영 변호사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 언론홍보대학원 졸업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졸업  
미국 변호사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



## 매일 얼마나 걸어야 알츠하이머병 증상을 늦추는데 도움이 되나요?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노인의 경우, 단지 매일 걷는 걸음 수를 '적당히' 늘리는 것도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것 같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한 새로운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어쩌면 매일 많이 걷는 것으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아직 인지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 초기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하루 3,000-5,000보를 걸은 경우, 그보다 적게(3,000보 미만) 걸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3년까지 지연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하루 5,000-7,000보를 걸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지 기능 저하가 평균 7년까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보폭에 따라 다르지만 1,000보는 약 800m의 거리에 해당한다.)



“당신이 늘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적당한 신체 활동도 그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 연구논문의 주저자(主著者)이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인지 신경과 의사인 와이잉 웬디 야우 박사(MD)는 말했다.

이 연구에는 296명의 노인이 참여하였고, 그중 일부는 뇌 스캔 검사 결과 아밀로이드 베타 (amyloid beta) 축적으로 인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을 평균 9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비교적 더 많이 걸은 사람들의 뇌에는 신경 세포(뉴런) 내에 축적되어 비정상적 덩어리(영킴)를 형성하여 신경세포들 간의 신호 전달을 두절시키고 신경세포를 파괴시킬 수 있는 다른 하나의 단백질인 타우( $\tau$ ) 단백질의 축적이 더디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의 걸음 수와 인지 기능 저하의 궤적(軌跡) 사이— 전자와 후자가 ‘원인과 결과’는 아니지만 —에 하나의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야우 박사는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 발견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의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야우 박사는 이 연구 발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를 보호할 실용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운동을 습관화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가 도움이 된다고 말해 주고 싶어요”라고 야우 박사는 말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저명한 의학 관련 학술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금년 11월 3일 온라인 게재된 이 연구는 뇌 스캔(scan) 시 검출되는 뇌 영상 바이오마커(생물학적 표지자)들의 변화가 인지 기능 저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15년 전 시작된 하버드 노화 뇌 연구(Harvard Aging Brain Study, HABS)의 일환이다. 야우 박사는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하루당 걸음 수로 측정한 신체 활동(physical activity)이 인지 기능 저하를 저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 Physical activity as a modifiable risk factor in preclinical Alzheimer’s dis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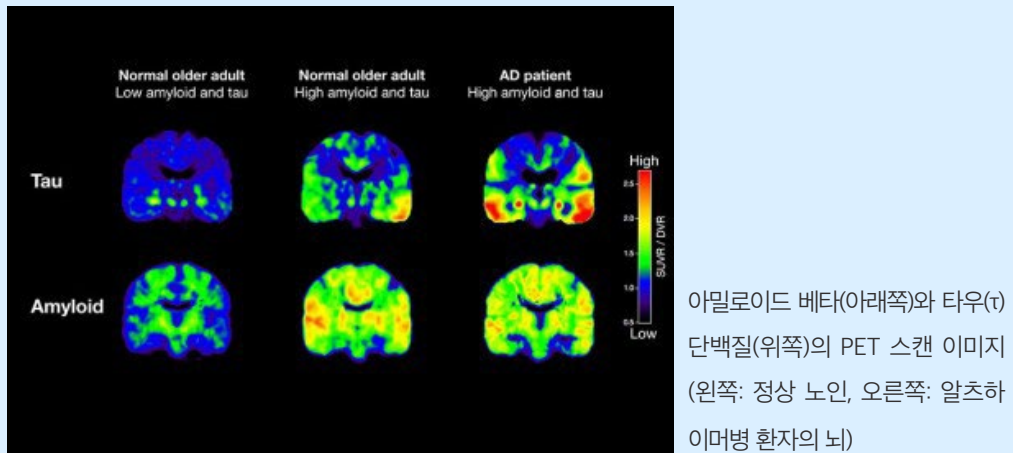
Received: 4 December 2024

Wai-Ying Wendy Yau<sup>1,2</sup>, Dylan R. Kirm<sup>1</sup>, Jennifer S. Rabin<sup>3,4,5</sup>,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노인들은 주로 앉아 있는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형태의 기억 상실 및 인지 기능 저하를 겪을 공산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생쥐와 쥐를 대상으로 수행된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 연구들은 실험동물에서 더 많은 신체 활동량이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과 타우( $\tau$ ) 단백질 엉킴을 경감시켜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야우 박사는 실험동물에서 보인 운동의 유익함이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구 시작 당시 치매나 기타 기억력에 문제가 없었던 50세에서 90세 사이의 참여자들은 뇌 PET 스캔<sup>¶</sup> 검사를 받았고,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의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tau$ ) 단백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그들의 하루 평균 걸음 수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 시점부터 7일 동안 만보기를 착용하였다.

¶ PET 스캔(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검사는 소량의 방사선 추적자를 인체에 주입하여 장기와 조직의 기능(혈류와 산소 사용) 등을 보여 주는 3차원 영상 검사이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은 참여자의 걸음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 기능과 일상 활동뿐만 아니라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tau$ ) 단백질 양의 정도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야우 박사는 연구진이 왜 운동이 인지 건강에 유익한가를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말했다. 한 가지 그럴듯한 설명은 더 큰 신체 활동양이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거나 염증을 감소시켜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 수도 있겠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한 가지 한계점은 만보계가 하루에 걷는 걸음 수를 측정했지만, 연구자들은 그 걸음 수가 걷기에 의한 것인지 또는 달리기에 의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야우 박사는 말했다. 또한 그들은 참여자들이 규칙적인 근력 운동, 수영 또는 다른 형태의 운동을 했는지도 기록하지 않았다.

“걷기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신체 활동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습니다”라고 야우 박사는 말했다.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다음 단계는 신체 활동의 어떤 측면— 강도, 지속 시간, 패턴 —이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의 초기 알츠하이머병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우 박사는 연구 대상 집단이 히스패닉계(系)가 아닌 대부분 고학력의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네소타주(州) 로체스터에 위치한 메이요 클리닉의 신경과 교수인 로널드 피터슨 박사는 이 연구가 ‘확실한 방법론’하에 수행되었고, 연구 발견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단지 연관성일 뿐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 연구 발견을) 폭넓은 인구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라고 피터슨 박사는 말했다. “우리는 아직 운동의 작동 원리와 영향력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노년기 치매에 관한 역학(疫學) 연구들은 중·고강도의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평생 습관이 알츠하이머병 위험 감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캔자스 대학교 의과대학 KU 당뇨병 연구소 소장이자 세포생물학·생리학과 교수인 존 티폴트 박사는 말했다.

하지만 이미 경도 인지 장애 초기 증상을 보이는 노인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은 질병 진행을 늦추는 데 ‘엇갈린 결과들’을 보였다. 그는 운동 패턴을 일평생 유지하는 것이 타이완의 창궁대학교(長庚大學校)에서 실시한 6개월 동안의 복합 신체 활동에서 보인 결과보다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더 확고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이든, 더 많이 걷는 것—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은 몸 안에서 수많은 다른 긍정적인 적응을 촉진하여 질병이 건강에 해롭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티폴트 박사는 말했다.

“걷는 시간과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티폴트 박사는 말했다. “모든 결과들이 긍정적일 것입니다.” **지구촌**

— 2025년 11월 4일 자 워싱턴 포스트

● 지구촌교회 정기집회 안내

수지채플		구 분	분당채플	
시 간	장 소		시 간	장 소
08:00	본당(4층)	1부 예배	08:00	본당(8층)
10:00		2부 예배	10:00	
12:00		3부 예배	12:00	
14:00		더함예배 장년/청년2/통일비전	14:00	
16:00		홀리웨이브예배 (대학/청년1)	16:00	
05:30	본당(4층)	새벽기도회 (월-토)	05:30	그레이스홀(로비층)
11:30		수요예배 (수)	11:30	본당(8층)
20:30	본당(4층)	파워웬스데이예배 (수)	20:00	
		20:30	20:30	
10:00	본당(4층)	시니어예배 (금)	10:00	

● 교육목장 주일예배

10:00 12:00	111호	영아촌 0세-36개월 (부모 동반)	10:00 12:00	702호
	110호	유아촌 4세-5세		701호
	208호	유치촌 6세-7세		703호
14:00	110호	미취학 연합촌 4세-7세	14:00	701호
10:00 12:00	201호	유년촌 초1-초2	10:00 12:00	710호
	203호	초등촌 초3-초4		711호
	207호	소년촌 초5-초6		712호
14:00	201호	어린이 연합촌 초1-초6	14:00	712호
10:00	202호	중등마을 중2-중3	10:00	206호
	310호			210호
12:00	310호	중1-중3	12:00	206호
10:00 12:00	311호	고등마을 고1-고3	10:00 12:00	412호
				209호

● 장애인을 위한 주일예배

12:00	202호	아름예배 어린이/청소년/청년/장년	10:00 12:00	105호, 106호
*분당채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동행 예배	12:00	102호(L층)
		수어 예배	10:00	102호(L층)
		14:00	본당(8층)	

● 글로벌목장 주일예배

*분당채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 예배	장년	10:00	선교센터 (MD프라자)	올네이션스홀 (B1층)
		청년	14:00		다니엘홀(701호)
		청소년	10:00		글로벌아홀(8층)
		어린이			햇빛마당홀(B1층)
	미취학	14:00	소피아홀(8층)		
	일본어 예배		햇빛마당홀(B1층)		
	일본어 주일학교	10:00	소피아홀(8층)		
	중국어 예배		에스겔홀(7층)		
	중국어 주일학교	11:30	703호		
	몽골어 예배	10:00	글로벌아홀(8층)		
	몽골어 주일학교				
	이주자 예배	14:00			
	처인구 영어 장년 예배	13:30			
처인구 몽골어 예배	15:30				

● 분당채플 3부(12시) 예배에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구 분	경기대채플		필그림하우스		구리지구촌채플	
	시 간	장 소	시 간	장 소	시 간	장 소
1부 예배					08:00	
2부 예배	10:00		09:20	갯세마네채플	10:00	5층, 본당
3부 예배	12:00	텔러컨벤션센터	11:00	카리타스채플	12:00	
4부 (젊은이) 예배					14:20	
청소년 예배	10:00 12:00	복지관B207호			10:00	6층, 615호
어린이 예배		복지관B206호			12:00	6층, 614호
미취학 예배		복지관B202호			12:00	6층, 616호
수요예배			19:00	갯세마네채플		
금요비상기도회					20:30	5층, 본당
새벽기도					05:30	
토요기도회			19:00	갯세마네채플		

- 경기대채플에서는 미취학/어린이/청소년 예배가 동일시간에 진행됩니다.
- GMN채플 예배는 현장예배 회복으로 분당채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수지채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48번길 48(신봉동)  
대표전화 031-264-9191 팩스 031-270-8100



분당채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154번길 6(구미동)  
대표전화 031-710-9300 팩스 031-710-9400  
선교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들마로 52(MD프라자)



필그림하우스  
경기도 가평군 북면 가화로 1862  
대표전화 031-589-7601 팩스 031-589-7610



GMN채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74번길 19(구미동)  
대표전화 031-719-919 팩스 031-710-5961



경기대채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이의동)  
대표전화 031-270-8230(주일전용)



구리지구촌채플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86 5-6층(수택동)  
대표전화 031-564-9291 팩스 031-569-9291



## 원고접수 및 안내

### 지구촌교회 홈페이지

(www.jiguchon.or.kr)의

- 1 우측 중앙 지구촌비전 아이콘 선택 후
- 2 원고접수 게시판에
- 3 사진과 원고, 연락처를 기재하고 관련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접수박스가 안 보일 경우 인터넷 메뉴줄 우측의 호환성 보기 설정 필요

접수된 원고는 교정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지면 여건상 게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지구촌교회 방송설교 안내

ON AIR

지구촌교회 홈페이지(www.jiguchon.or.kr)를 통해서 지구촌교회 **예배 생중계 시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시간 기준) **주일예배** 08:00, 10:00, 12:00, 14:00, 16:00  
**수요향수예배** 수요일 오전 11:30



◀ 지구촌교회 설교페이지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지구촌교회 설교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www.jiguchon.or.kr www.goodtv.co.kr	라디오	• '생명은 빛으로'(서울극동방송 FM106.9) 목요일 오전 9:20-9:50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lovejiguchon	TV 지구촌교회 방송시간	• CTS 화 오전 6:00 비전메시지, 화 오전 6:00 생명의 말씀 • CGN 화 오후 2:20(영어자막) • CBS 토 오전 6:30 • GoodTV 주일 오후 2:30

해외동역교회		
니이카타지구촌교회	639-2, Mako, Nishi-Ku, Nigata-Shi, Nigata, Japan	+81-25-201-8122
동경지구촌교회	169-0073 Tokyo-to, Shinjuku-ku, Hyakuninchi, 1 Chome-9-3, Japan	0574-86987477
상해지구촌교회	中國 上海市闵行区 宜山路 2328弄 30号 903室	+86-186-2172-9613
해밀턴 지구촌교회	33 charlemont st, Hamilton, New Zealand	+64-27-414-2777
호치민지구촌교회	B10-2 Nam Thien 2, Phu My Hung, 7, HCMC, Vietnam	+84-8-2211-9951-2
오克兰지구촌교회	97 Onewa Road, Northcote, Auckland, New Zealand	+64-9-216-1177
닝보교회	1-11902, 338, ringhuang-Road, Yinzhou-district, Ningbo-city, Zhejiang-Provincia, China	0574-86987477
동역교회		
고덕지구촌교회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로 200-4, 15층	031-647-0110
기흥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운로 217 (자곡동 456-2)	031-283-7991
글로벌지구촌교회	전남 나주시 그린로 357 스키아일랜드빌딩 3.4층	061-332-0191
대우지구촌교회	서울 송파구 오금로 432 삼현상가 3층	02-431-6458
다라이프지구촌교회	<b>동탄채플</b> 경기 화성시 동탄신호동 동탄신호대로 263번길 풍산맨션인티워 7층 <b>광고채플</b>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5 우연프라자 7층(영덕동 986-8)	031-212-2291
더블래스트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로7번길 45 5층	070-7699-9191
동백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13(중동 847), 삼성타워 9층	031-693-8291
동탄지구촌교회	경기 화성시 원곡매로 168-1(중동 44-4번지)	031-8003-8253
관음지구촌교회	경기 화성시 동탄 신민천로 414, 경서타워 7층	031-375-8891
만방생 목장교회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91 덕운프라자 2층 202호	031-896-0300
민들레지구촌교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종백대로 448번길 96. 4층	070-7757-1201
세움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그네로 53번길 27-24(서천동 397-20)	031-205-1191
신동탄 지구촌교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23길 107	031-376-3055
영랑지구촌교회	서울 강동구 상암로61길 32 1층	010-2555-4642
은시랑지구촌교회	경기 광주시 오포읍 창철왕길6번길 8 (능평리)	070-4119-5941

죽전지구촌교회		
<b>협력교회</b>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49 씨티프라자 7.8층(보정동 1208-2)	031-896-7070
골드코스트 지구촌교회	170 Nerang Street, Southport, QLD 4215, Australia	61-433-60-9191
뉴비전교회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408-719-0000
뉴저지 지구촌교회	70 Sheridan Ave. Ho-Ho-Kus, NJ 07423, USA	+1-201-445-0191
늘기교회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214	031-978-0121
더사랑지구촌교회	부산 영도구 영선대로 40	051-415-0831
동안교회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25길 67	02-962-0727
라이프스프링교회	인천 연수구 칸베어101대로230번길 42 이라프프라자 4층	032-831-3775
목동 지구촌교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79	02-2647-0191
베이커스필드 지구촌교회	25 Gamsey Ave. Bakersfield CA, 93309	(346) 317-8766
세종지구촌교회	세종 장군면 대교길 117-15	044-862-1441
송탄중앙침례교회	경기 평택시 탄현로 368번길 25 (독곡동 403-5)	031-665-2995
시목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3길 32 시목교회	043-269-1941
시애틀 지구촌교회	4900 168th St. SW Lynnwood, WA 98037	425-350-0191
아틀란타 지구촌교회	4480 Peachtree Corners Cir. Norcross, GA 30092	404-579-4570
영주침례교회	경북 영주시 명림길 38 영주침례교회	054-634-2004
예일교회	부산 금정구 중리대로 2008	051-518-4189
워싱턴지구촌교회	13421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301-460-1656
원주 온누리침례교회	강원 원주시 이화4길 50-11	033-748-0032
천안 지구촌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17번길, 201호	041-523-1191
춘천침례교회	강원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99	033-254-4059
함흥교회	14100 Parke Long Ct. Suite K. Chantilly, VA 20151	(571) 719-259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1).



## 동방박사의 별

2025년 성탄전야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온다면

낙타 대신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비행기를 타고 오겠지.

길은 달라져도 별빛은 여전하고,

박사들이 찾는 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한 분,

구유의 아기 예수님. **지구촌**

# 쿠키들의 크리스마스모험

2025. 12. 21(주일) 오후 6시  
본당채플 8층 본당



영탄축매(현장)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